

10.c.
마가의전환기록서언해

S. D.
II
42

COR. 1-547



마가의 전훈복음서 언히

데일장 - 상데의 아 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니 그 처음이라

선지자의 기록 할바에 닐너스되 보라 내가 나의 스자 를 네 압회

보내 여씨네도 틀곳 초개 할리라 할 말과 곳치 들에 사 람의 소

리 잇서 웨 처닐 으티 쥬의 도 틀곳 초아 그 길 을 곳 게 할 다 할 더 니

요한 이 들 에 서 세 레 를 베 푸 러 뉘 웃 처 곳 치 는 세 레 를 전 할 야

할 여 곱 죄 사 함 을 엇 게 할 니 온 유 대 이 따 와 다 못 예 루 사 념 사

롬 이 다 와 서 요 르 단 하 슈 에 서 요 한 의 게 세 레 를 밧 고 각 각 제 죄

물 즈 복 할 더 라 대 더 요 한 은 약 티 의 락 을 삼 고 허 리 에 가 족 씩

물 씩 고 먹 는 거 손 황 총 과 들 쌀 이 러 라 할 여 곱 으 티 내 뒤

에 혼 사 롬 이 오 되 나 보 다 나 혼 지 라 곳 나 사 롬 의 신 들 메 를

푸 는 소 님 도 내 가 감 당 치 못 할 거 시 며 세 레 를 물 노 씨 너

마가의 전훈복음서 언히



일



의게 주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세례를 성령으로 써 너의게 주리
 라 할 터라 ○ 이때 예수 갈릴리아의 나사렛으로 브터 오샤 요
 르단에서 요한의게 세례를 받으시고 + 드터 여물 에나 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합도긋치 그 우희 강림함심이 뵈이며 +
 또 흐하늘 노브터 소리 잇서 날으되 너는 나의 사랑함은 아 들이
 니나의 깃거함은 자 | 라 할 터라 ○ 성령이 즉시 인도함여
 들노가 니라 + 거의셔 둘에 처함 신제스 십일에 사탄의게 시험
 함을 당함시요 들 짐승과 꺾치게 시매 하늘스자 | 시종 할 터라
 + 요한이 깃침을 당함 후에 예수 | 갈릴리아에 너러던국의
 복음을 전함야 + 날으시되 과약이 임의 너러던국이 깃가
 온지라 너희는 맛당이 뉘웃고 꺾쳐 복음을 밋을 지어 다 + 예수
 | 갈릴리아 해변에 행함시 다 가시몬이 제동성안드레아로더

브러바다에 그물질함을 보시니 이 사름들은 어부라^ㄱ 예수
 1닐으샤 디나물 조차면나 1작춧사름을 낚는 어부 1되게하
 리라 하시니^ㄱ 그 사름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조차니라
^ㄱ여기로 조차조곰더가셔 제비디의 아들야고보와 그동생요
 한으로더 브러빅에서 그물을 기음을 보시고^ㄱ 예수 1드티여
 부르시니 요한이 그아비제비디는 품군과^ㄱ치빅에잇스라하
 고예수를 조차니라^ㄱ 그 사름들이 가베나온에나아가 즉시사
 벳일에 회당에 드러가샤^ㄱ르침을 펴시니^ㄱ 그^ㄱ르침심어마
 치집권함이^ㄱ고 선빅들과^ㄱ지논아니하니 이러므로 못사름
 이그교를괴이히 녀이더라^ㄱ 회당에 계실 제함뭍쓸사귀들난
 사름이잇서서^ㄱ 웨여왈아셔라나사렛사름예수여우리너와
 무슴상관이잇관디너 1와셔나를 패망케하논다나는네가된
 마가의전함복음서언히

이

줄을 하느니라에 상테의 성훈자니라 하거늘 예수ㅣ물니
쳐 급으샤 티 입을 봉하고 그 사람의 게 떠나가라 하시니 못 쓸
샤 귀그 사람을 오그려 떠러 놓코크게 소리를 웨치고나가니
못 사람이 대경하여 이상이 덕이며 서로 무려 급으티이논엇진
일인고이 무슴새요ㅣ나대더그 위 권으로써 못 쓸샤 귀라도 명
할시매 샤 귀도 순종하논도다 하여 드티여이 성명이 갈닐뵈
아스방에 진동하더라 임의 회당에서나아오샤 죽시야고보
와다 못요한과 흠씩시몬과 밋안드레아의 집으로가시니
몬의 처도가 열병이 드러누엇논지라 후이 예수씩엿즈온대
예수ㅣ그 압희오샤 그 손을 잡아 나르키시니 열병이 죽시물너
가논지라 그 지어미드티여시종하더라 저 무려히 잘때에 병
들고샤 귀들난자들 다리고 예수씩나아오니 온고을이 문

예 무히 었 다 라 〓 예수 1 허 다 흥 병 인 을 꾀 처 주 시 며 또 흥 모 든
 사 귀 들 을 쫓 초 시 티 사 귀 들 노 흥 여 곰 말 을 못 흥 게 흥 시 니 대 더
 사 귀 들 은 알 미 러 라 〓 〓 잇 른 날 아 침 어 득 흥 여 예수 1 너 러 나
 들 에 나 가 사 거 괴 셔 괴 도 흥 시 더 니 〓 시 문 파 고 처 잇 던 사 용 들
 이 뒤 흥 조 차 〓 맛 나 매 었 조 외 글 오 더 모 든 이 너 물 찾 노 마 흥 나
 〓 예수 1 널 너 글 〓 사 티 우 리 가 갓 가 온 고 을 에 가 셔 내 가 고 르
 처 러 흥 노 니 대 더 나 본 이 열 을 위 흥 여 왔 노 라 흥 시 고 〓 예수 1
 갈 날 너 아 소 방 에 두 루 흥 야 회 당 에 서 고 르 처 며 또 흥 사 귀 들 쫓
 초 시 더 라 〓 〓 흥 문 동 이 나 아 와 근 구 흥 며 썩 러 었 조 오 대 너 1
 만 열 즐 겨 흥 러 흥 실 진 대 능 히 나 물 썩 고 흥 게 흥 리 이 다 흥 타 〓
 예수 1 불 상 이 너 이 사 손 을 퍼 사 문 저 글 〓 사 티 나 노 흥 고 저 흥
 노 니 너 노 썩 고 흥 지 어 다 〓 말 숨 이 못 처 며 즉 시 문 동 병 이 업 서
 마 가 의 전 흥 복 음 서 언 히

지요 그 사롬이 석곳 향여 저니 예수 | 엄히 경계 하야 보내시
며 ¹⁰닐너 글으샤 터너 | 삼가 사롬의게 말하지 말코 다 만몸소
가서 제스의게 보이코 또 향네 석곳 향엿심을 위하야 모세가 명
훈거 솔드려 여러 사롬의게 증거가 되게 하라 ¹¹그리 향여 도그
사롬이나가 전파 향며 이 일을 자랑하니 예수 | 완연이 성에 드
러가지 못하시코 이에 밧것들에 계시나 사롬들이 스방으로 쯔
차나아 오더라

예이장 - 수일을 지나 예수 다시 가베나 온에 나아가시니 사롬
들이 그집에게 심을듯고 ¹²즉시 여러 사롬들이 모혀들때 용선
훈틈이 업고 문전에 논더 옥용선 훈터아 조업시되니 예수 | 그
사롬의게 도를 강론하실새 ¹³훈풍병으로 반신불슈 훈자롬네
사롬이 메여오니 ¹⁴사롬이 만흠으로 갓가이 갈수 업스매 징웅

을 뜻고 구령을 낸 후에 풍병 든 사람 누은 상을 이 흐로 부터 드라
 느리니 ^五 예수 | 그 밋음을 보시고 풍병인의 게닐 너골으샤되
 아 들 아네 죄를 샤하노라 하시니 ^六 었던 선비들이 거괴안젼다
 가심중에 ^七 만이 생각하되 ^七 이 사람이 었지 이 곳 처설만하노
 상대의 에는 능히 죄를 샤하리오하니 ^八 예수 | 심중에 밋셔
 이러케 ^九 만이의 론함이 잇슴을 보시고 드되 여닐 너골으샤되
 너의 중심에 었지 하여 이 일을 위론하느나 ^九 풍병인을 향하여
 빌으되 네 죄를 샤하엿다 홍과 쓰니 러나네 평상을 가지고 든니
 라 홍이 었던 거시 더쉬오나 ^十 다만 너로 하야곰인즈 | 세상에
 잇서 죄를 샤하느권이 잇는 줄을 알게하리라 하시고 풍병인 든
 러닐 너골으샤되 ^{十一} 나 | 너드려말하노니 러나 평상을 가지
 고네집으로도 라가라 하시니 ^{十二} 그 사람이 죽시니 러나 상할가
 마가의 전흔복음서 언히

스

지고 모든 사람의 압히셔나가매 모든 사람이 놀나고 이상히너
 이며 상대역찬양할야닐으터우리가제사지이갓흔이잇슴을
 보지못할였노라 할더라 ○ 11 예수ㅣ다시나가사히변에니르
 시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띄로 나아오니 예수ㅣ그리치시더라
 지나시다가알피오의아들레위가세밧논관에안젧심을보시
 고드더여닐너글으샤티너ㅣ나를조차라할시니레위너러나
 즉시조차니라 ○ 12 예수ㅣ레위의집에안자잡스오실시여러
 세리들과다못죄인들이예수와밧그메즈로긋치안젧새너대
 개그런사람들이만히조침이러라 13 선비와바리새들이그
 세리와밧죄인으로더부러흔가지음식함을보고그메즈드려
 닐너왈더이가엇지할여세리와밧죄인으로더부러음식을긋
 차할뇨 할거늘 ○ 14 예수ㅣ드르시고닐으시티성할고건장

혼자는 의원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병든 자라야 쓰는 내가
 오기는 의원을 부르려함이 아니오 이에 죄인을 불너 뉘웃쳐 곳
 처재함이 나라 ○ ○ 무릇 요한 데즈는 바리새 오와 곳 처재 곽하
 더니 후이 예수께 나아가엿즈오 티 요한의 데즈와 밋바리새 오
 들은 절곡하거늘 오직 너의 예즈는 절곡을 아니하니 엿지함이
 노 ○ 예수 ○ 빌너 글은 사티새로 장가드노자 ○ 잇스니 장가합
 을 처하호는 자 ○ 엿지 능히 먹지 아니하니 호리오새로 장가드노자
○ 잇서 곳 처잇슬 때 예즈는 더 ○ 능히 음식을 금치 못할 거시오 ○
 다만 장티날에 장가든 차 ○ 리별하고 갈닐 때 예즈는 반드시 음식
 을 금호리니 ○ 새벽으로써 낫은 옷을 김지 아니호는 거슨 새 거시
 낫은 거슬 당기여 더 상해올가 두려워함이 오 ○ 또 호새술을 낫
 은 가족부터 예담자 아니호는 거슨 새술이부터 쓰어 술이 새
 마가의 전호복음서 언히

오

고 부터 더히여 질가 두려워 흠이니 오직 새 술은 새 부터에 담을
거시니라 ○ ㄷ 못참사 밧날 예수 밧가온대 틀지 날식그대즈
나 단닐 데에 이삭을 쫓더니 ㄷ 바리새 오들이 드터여 닐너 글으
터 더사 롬이 사 밧날에 맛당이 힘처 못 할 일을 힘흠은엇지 흠이
노 ㄷ 예수 나 닐너 글으샤 터다 위 좃노사 롬으로 더 부러지치고
비골 흠에 에 힘할던 일을 내가 늙지 못 할 엿느냐 ㄷ 이사 롬이 아
비하다 ㄷ 제스 장 되엿실 때에 상대의 궁에 드리 가 압회 공양 할
논 벽을 먹로 또 호 다리고 간자 물 주엇시니 오직 이 벽은 제스 외
에 사 롬은 가히 먹지 못 할 노거시라 할시고 ㄷ 또 닐너 글으샤 터
사 밧날을 사 롬을 위 할야 마련 흠이 오사 롬을 사 밧날을 위 할야
마련 흠이 아닌 거시나 ㄷ 이러므로 새인즈도 또 호사 밧날의 주
이 되노니라

데삼장 - 예수 - 또 회당에 드러가게 시매 사롬이잇스되 그
 손이 조막손이된지라 - 중인이사 밤날에 곳쳐주나 아니하
 엿보와의스가 용스코져하더니 - 예수 - 조막손이 드러닐너
 곁으샤 티흐가온대 니려셔라 하시고 - 여러사롬드려말습하
 여 - 들으샤 티 사밤일션을 힘흐과 악을 힘흐과 인성을 구하노
 곁과 인성을 살하노 거시어는 거시당연하리오 여러사롬이
 막연하여잇스니 - 예수 - 노하샤 여러사롬을도라보시니 그
 몸들이 잔인함을근심하심이라 그사롬드려말습하여 곁으
 샤 티네 손을펴라 하시니 드티여펴매 손이 즉시나아 성
 혼손과 곳하
 니 - ^六 바리새오사롬이나와해로데의무리로더부러
 하가지로 예수치기틀썩하되 쟁
 좃엇지하여 멸홀코하더라 - ^七
 므릇에 수 - 그데즈와 못치바다
 로갈시하다 혼사롬들이
 갈닐니아로 마가의전
 혼복음서언히

서도 브러오며 이 유대아로셔도 브러오며 예루살렘으로서도
 브러오며 이 두막로셔도 브러오며 요르단밖의로셔도 브러
 오며 또 홀두로와 다못시돈의속한사롬물도그형한시논바들
 듯고 또 호히다한사롬들이잇서나아오니 예수그대저들
 명한사적은박를준비하고 기다라하시니 사롬이만흔교로
 써당신을용위함을면하라함심이라 대개예수가사롬을낫
 개하기를암의안히호고로므로질병잇는쟈는다핍근하여
 지라함더라 사귀호번보고곳그압회부복하여불너골이티
 너논가에상대의아들이라하니 예수그엄히경계하여하여
 금전파치못하게하시더라 ○ 티여산에올으사호고저함심
 을쓰라써사롬을부르시매사롬이곳나아가니 미수십이인
 을세워하여금즈기와긋치하여보내여교를베플게하시교

또 병을 곳치며 사귀를 쫓는 권이 잇게 하시니 시몬과 또 혼골
 온 배투로라 또 제비타의 아들이고 보와야고 보의 동생요한
 이 잇시니 이 두 사람은 또 일흔 여골의 사디보안엘게라 하니
 번역할 전대 곳되 스라 흠일너라 또 안드레아와 필립보와 바
 들노미와 마태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이고 보와밋다다요와
 다못가나아니의 시몬이며 또 이사가료의 이 유다스니 곳예
 수를 관자이라 임의 집에 드러가 매 못사름들이 다시 모화
 그 떡을 먹이기에 겨룰 치 못하게 하니 그 친속이 듯고 곳나와
 구코져 할야 말 할야 골의 디더 밋쳤다 하며 스즈 잇서 예
 루살넴으로 브터와 골의 디더는 벨세불의 병흔바 되여 귀왕
 을 빙자 할야 썩 죽기 혼다 하니 예수 부르샤 비유를 배 퍼닐
 니 골의 사디사한이 잇지 능히 사탄을 축 할리오 또 혼만 일나
 마가의 전흔복음서 언하

칠

라이스스로서로는호여정흔죽곳나라이능히셔지못하고
만일잡이스스로서로는호여정흔죽곳잡이능히셔지못하고
만일세탄이니러나스스로서로는호여정흔죽능히셔지못
하고반드시못춤에니를지라○사롭이능히용자의집에드
러가그물건을겁탈홀이업슴은반드시몬져용자들결박흔연
후에그집을가히겁탈홀지라나진실노네게닐은니무
뜻죄와다못더러온말노사롭이써더러이논자논그사롭을가
히사하려니와오직성신의게더러하논자논기리사를엇
지못하고반드시영형에드리라하시니모든이샤귀를잡하
나흐으로이러케말슴하니라○때에그대형이크모친으로
더브러니르러밖의셔서사롬을보내어나아와브르라하시니
모든이두루안젧는디혹이고하야글으되네모와네대형이받

그와너를찾는이다 예수이 대답하야골으샤되엇던이나의
 모친이되며나의데형이되리오호시고 드되여두루안전차
 를도라보시고골으샤되나의모와나의데형을보라 해개상
 데의뜻을좃는자 곳나의데형이며나의조미여곳나의모친
 이라하시더라

레스장 예수이 다시바다그회셔그르치실시모든이모혀오
 니더이바다회떠안저시고모든사물은바다언뵈에서니
 수이드되여여러뜻으로비유하야그르치실시닐너골으샤되
 드르라씩우고심으는자잇서나아가씨를씩을씩
 때에길그회들닌거손공중에식니르러다먹고 돌작박로박
 혼터셋친거손벗치쏘이면흙이갑지아님으로안흙이나날
 이나서벗치쏘하면불희업슴으로마르며 가시덤불가온대
 마가의전흔복음서언히

팔

잇시매 가시니라 나그리워 결실치 못하게 하며 옥도에 갖치
 매 발흥야 곳기느니 결실이 삼십비도 되고 류십비도 되고 비
 도되는 나라 또닐너 글으샤 터므릿귀가 잇서 뜻논자논맛당
 이 드물지니라 예수 혼자 처할 실때에 에워 잇는 이 열 두 문
 도. 로 더 브러 비유로써 못즈 오니 예수닐너 글으샤 터상 때
 나라 김흔 뜻은 너희게 알게 할 거시오 오직 의인의게는 비유로
 써 말하리니 비록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드러도 뜻지 못하야 그
 음겨져 샤함을 엿지 못할 가져 퍼함이 라 하시고 또닐너 글으
 샤 터너 이 비유를 아지 못하느냐 장춧 다른 비유를 엿지 알니
 오 십씩 우다 함은 도를 썩음 이 오 길그 회씩 우다 함은 곳씩 유
 논바의 도를 사롬이 드러 매 사탄이 드러 터여 니르러 그 무음에 썩
 운 도를 잡아 썩아 스리라 함이 오 돌작 밧희 썩우다 함은 곳사

롬이 도를 듯고 드티여 기기 밋으나 ㄷ 그러하나 안희셀회업스
 매또 혼잠간이니 도를 위하야 환난을 맛나거나 후해하느티 밋
 쳐서 논드티여 구의 흥을 불거시며 ㄷ 가식덤불에 썩음은 곳사
 롬이 도를 듯되 ㄷ 이세상에 실각과 다 못지물에 후하움과 밋모
 든물육이 드러그도틀그리온죽열미를 결치 못하느니 ㄷ 육도
 에 썩은자는 곳사롬이 도를 듯고 밋으며 또 혼열미를 결하기를
 후삼십비나 후육십비나 하느니라 ○ ㄷ 또닐너골으티사롬이
 등을 갖다가 말밋히나 후평상밋히 두겟느나 초티우희 두지아
 니하랴 ㄷ 대개 숨은거시 드러나지아님이 업고곰초인거시 드
 러나지아님이 업느니 ㄷ 귀잇서듯는자는 맛당이 드틀지어다
ㄷ 또닐너골으샤티맛당이 드른바에 삼갈지어다네 무승량으
 로써사롬을 헤아릴진티 곳장 초이량으로써너를 헤아릴거시
 마가의전훈복음서언히

구

며또 혼네 드른바에서 장초너틀더주리니 ㉔ 대개잇는쟈는 장
 초즐거시오잇슴이업는쟈는그잇던바를아을나또 혼장 초씨
 아스리라 ○ ㉕ 또 글으샤되 상데나라는사름이씨를싸희뎡곳
 향여 ㉖ 일야로자고니러날스이에씨나고또 혼길되그사름이
 그그러 혼바를아지못하느니 ㉗ 대개싸히본디만물을낼때처
 음에싸어나며다음에이삭이되며후에이삭이곡식을알우는
 니 ㉘ 열미열때는곳낫슬쓰리니거둘때가니름이니라 ○ ㉙ 또
 글으샤되우리장 초엇지씨 상데나라 흘비향며또 무슴비유로
 씨비유하랴 ㉚ 마치게즈씨하나 흘싸희씩울때에는싸우헤빅
 가저씨에지극히적음이되엿스나 ㉛ 오직씩운후에자라면모
 든나물에서크고또 혼큰가 지나서공중의시가히가지에깃드
 리게되는나라 ㉜ 예수 ㉝ 또이곳 혼비유로써만히베호러모든

이의게도를 그려치시되 그 능히 알아듣기를 쉽게 하심이라
 다만 비유아니하시면 말씀아니하시고 혼자 깨실 때에 그는 그 문
 도로 더 부러 푸르시더라 三三 당일 이 임의 저물 때 예수 | 그 문도
 드려닐 너 글으샤 티 우리 가히 더 편 언덕에 건 너리라 三三 임의 모
 든 이 허여 지매 인하시야 비에 계시니 문도 | 흠뻑 갈서 색로 적 온
 비 잇서 곳치가 더니 三七 풍량이 대작 하며 물결이 뛰여 비에 드러
 무득 흘 티 三九 예수 | 비 뜻 회개 서 버 리 고 지 무 시 니 문 도 | 세
 우며 또 흘 었 즈 와 글으 티 부 즈 여 우리 죽 겠 는 티 내 도 라 보 지 아
 니 하시 는 니 잇 가 三九 예수 | 니 러 나 샤 바 람 을 물 니 치 시 며 바 다
 흘 향 향 샤 글으 샤 티 즘 즘 하 라 하시 니 바 람 이 죽 시 곳 치 며 이 에
 크게 평안 흐지라 四一 예수 | 문도 드러닐 너 글으샤 티 너 | 엿 지
 이 곳 처 두 려 워 흐 며 너 | 엿 지 밋 음 이 업 는 나 四一 못 사 롬 이 심 히
 마 가 의 전 흘 복 음 서 언 히

십

놀나서로닐니골으되이엇던사름이관되바람과다못물결이
또흐순종흐다흐더라

데오장 바다더편언덕게라시노사름의싸희니르러 예수
| 임의비틀찌나매샤귀를접흐사름이무덤스이로나와맞나
나 제가무덤스이에거흐매사슬이라도능히매지못흐니
대개더 | 여러번착고와사슬노맹을보대사슬이더의게흔히
진바 | 되고착코가더의게흔히진바 | 되여못춤내제어홀수
업고 쥬야로홍상외와산에잇서부르지지며또홀돌노써스
스로상흐더니 멀니예수틀뵈옵고추창하여절흐며 크게
소리호며불니왈저극히놀흐신상데외아돌예수여나 | 너와
더브러무삼상관이잇습느니잇가나 | 상대의일홍을의탁호
여네게구호느니나를고롭다말으쇼서흐니 대개계수 | 일

즉 이 날 너 곧으샤 티 너 1 더러 온 귀신이로다 그 사람의게로 나
 아 가라 호섯심는 이다 九 이에 무리 곧으샤 티네 일홈이 무어시
 뇨 티 답 호여 곧으 티 내 일홈이 군이니 우리들이 만흔 연고 1 니
 이다 + 드 티 여 이 짜 희 쫓 츄 내 지 말 아 달 나 호며 + 더 기 끈 도 야
 지 씨 가 잇서 산에 갓 가 이 호야 먹 더 니 + 여 러 잡 귀 다 구 호 여 왈
 우리 들 을 보 내 여 도 야 지 의 게 가 셔 드 러 가 게 호 여 달 나 호 기 놀
 + 예 수 1 드 티 여 허 락 호 시 니 샤 귀 나 아 가 도 야 지 게 드 러 가 니
 이 천 이 나 되 는 씨 도 야 지 언 덕 으 로 닷 고 바 다 희 튀 여 드 러 짜 지
 기 놀 + 도 야 지 를 치 던 자 1 음 비 와 촌 으 로 다 라 고 호 니 모 든 이
 나 아 가 호 는 바 를 보 러 호 여 + 예 수 띄 나 아 오 매 몬 져 샤 귀 을 접
 호 여 군 이 라 호 던 자 1 안 자 옷 슬 님 고 즈 약 홈 을 보 고 두 려 워 호
 며 + 보 는 자 1 귀 신 을 접 흔 사 름 을 맛 난 것 과 씨 도 야 지 일 노 써
 마 가 의 전 흔 복 음 서 언 히

십일

고 하니 모든 이 드 디 여 예수 께 구 항 여 그 디 경 에 쫓 치 시 기 를
 청 항 논 지 라 ○ 예수 | 비 에 오 르 시 니 문 저 귀 신 접 항 사 롬 이
 항 가 지 로 가 기 를 구 항 거 늘 예수 | 허 치 아 니 항 시 고 날 으 사
 디 너 | 집 에 도 라 가 네 천 항 이 의 게 나 아 가 주 | 엇 더 케 네 게 항
 신 것 파 너 를 불 상 이 녀 임 을 닐 너 라 항 시 니 그 사 롬 이 이 에 데
 가 불 니 에 잇 서 예 수 | 엇 더 케 더 의 게 항 항 시 던 거 슬 닐 으 니 모
 든 이 신 과 히 녀 이 더 라 예수 | 비 를 등 시 고 다 시 그 언 덕 으 로
 건 너 시 니 모 든 이 운 집 항 여 나 오 매 이 에 바 다 그 에 게 시 더 니
 회 당 을 맛 흔 야 에 로 | 라 항 논 자 | 잇 더 니 와 서 예 수 께 뵈 움 고
 이 에 발 아 래 부 복 항 여 근 절 이 청 항 여 글 으 디 나 의 어 린 딸 이
 죽 기 에 니 르 렷 스 니 너 | 와 서 그 우 회 손 을 덥 히 항 여 곰 뇳 게 함
 을 엇 게 흘 진 대 반 드 시 살 니 라 예수 | 곳 처 가 실 식 모 든 이 용

위하 여 조치니 때에 흐리어 미잇시 되혈루호제 열 두히라
 심히 여러 의원의 고로운바 되고 또 흐릿던 거슬 다 허비하되
 유익함을 보지 못하고 증세 극중하더니 예수물드러 매도되
 여 못사름을 헛치고 니르러 뒤흐로 조차 그 옷슬 문지며 글
 되나 다 만 그 옷만 문지면 흐리라 흠이 러니 주시 혈루중
 이 막히 이고 몸에 잇는 병이 임의는 혼줄 쓸찌 다 물지라 예수
 도 죽시 지 괴로부터는 흥을 알으시고 모든 이가 온대셔 도라 보
 아 글의 사되 뒤내 옷슬 문졌는나 그 문도 엿조오되 못사름
 기너를 옥위함을 보시거늘 엿지 날의 사되 뒤나를 문졌는호하
 시는 나잇가 예수가 이 일을 흐리어 미물 보려고 돌나 보시니
 지어 미지괴가 흐거슬 알고 무셔 위설고와셔 그 압회업드려
 셔그의게 모도 참말노하니라 예수 그게 집드려 날너 글
 마가의 전호복음서 언히

십이

사 터 깨 짐 아 네 밋 음 이 너 를 노 게 하 였 서 니 평 안 이 가 라 피 병 이
는 흐 니 라 ㄷ 말 숨 흘 때 에 사 롬 이 있 서 회 당 을 주 장 하 는 사 롬 으
로 더 브 러 글 으 터 네 썸 이 임 의 죽 었 는 지 라 스 승 님 을 슈 고 롱 게
홍 이 무 엇 하 리 오 하 거 늘 ㄷ 예 수 | 그 말 숨 을 드 르 시 고 바 로 회
당 주 장 하 는 자 드 러 닐 너 글 으 사 터 격 정 말 고 오 직 밋 기 만 홍 사
롬 이 니 라 하 시 고 ㄷ 역 에 베 드 로 와 야 고 보 와 밋 야 고 보 의 아 오
요 한 외 에 는 다 른 사 롬 이 쓰 라 지 못 하 게 하 시 고 ㄷ 회 당 주 장 하
는 자 집 에 니 르 러 부 르 지 지 며 통 곡 하 며 설 음 을 이 기 지 못 홍 을
보 시 고 ㄷ 드 러 가 신 후 에 그 사 롬 들 드 러 닐 너 글 으 사 터 었 지 부
르 자 지 며 우 는 노 게 짐 으 히 죽 은 거 시 아 니 라 임 의 잠 자 는 거 시
라 하 시 니 ㄷ 모 든 사 롬 이 웃 거 늘 예 수 | 모 든 사 롬 들 을 내 여 보
내 고 깨 짐 으 히 부 모 와 밋 당 신 이 드 러 온 사 롬 을 다 리 시 고 깨 짐

회누은곳의드러가셔 이에계집의회손을잡고며드러닐
너글의샤티다리타구미라하시니번역할진대계집의히야내
명할노니네너러나라하시미라 계집의히즉시너러나며또
흔거러둔니내대개제나히임의십이세라중인이크게놀나며
이상이너이거늘 예수이엄히경계하여이힐을사름으로하
여곰알니지말나하시고명하여밤으로써계집의히를주라하
시니라

예루장 거기를쳐나고향에도라가실시며저들이좃더라
못참사밧날이되여회당에서그루치시니여러히듯고신과히
너여글의티이사름이엇지시러곰이러하노티인바의슬과가
엇지이러든시과이흔지요를그손으로브러히하노 이마리
아의아들목슈아니며야고보와요세와유다스와시문의형대
마가의전흔복음서언히

십삼

아니며 그 주의 우리와 니웃시 아니냐 할야 이에 위 할야 거리셈
을 당 할니 ^四 예수 | 빌너 글으샤 티아논 사 롬을 고향과 일가의
집안 외에 논 존 숭 호 지 아 닌 티 업 느 니 라 할 니 라 ^五 그런 고 로
거기 셔는 다 른 령 적 을 힘 치 안 코 오 직 손 으 로 두 어 병 인 을 문 저
끗 처 주 시 고 ^六 또 호 더 의 맛 지 아 니 흥 을 괴 이 히 녀 이 샤 이 에 두
루 모 든 시 골 에 든 니 며 그 르 치 더 라 ^七 예수 | 십 이 문 도 를 불 너
두 명 식 보 내 사 며 점 지 할 여 그 권 이 있 게 할 여 씨 잡 귀 물 제 어 할
게 할 시 며 ^八 또 호 명 할 샤 그 집 광 의 외 에 무 슝 로 즈 와 후 즈 루 와
후 량 식 과 후 금 을 주 머 니 에 너 히 진 이 지 못 할 게 할 시 고 ^九 오 직
신 만 신 고 두 가 지 옷 도 님 지 말 나 할 시 며 ^十 또 당 부 할 여 글으샤
티 무 론 어 는 곳 이 던 지 사 롬 의 점 에 드 러 잇 스 면 너 | 그 곳 을 떠
나 도 록 잇 스 되 ^{十一} 너 를 붓 치 지 아 니 며 ^{十二} 좃 지 아 닌 논 자 | 잇

거든거의씨날때네발아래몬지물써러브러써모든이의게중
 형을삼으라나 | 진실노너드려닐으느니심판하느날을당하
 여소돔파다못고모라의형벌을이고을에비하면오히려견티
 여춤을만하리라하사디라 ㄷ 데즈들이다가셔사롬들이맛당
 이취웃쳐꽃칠도물전하교 ㄷ 또훈축귀를만히하며고약으로
 써병인을발나긋게하더라 ㄷ 예수의닐음이임의파다하매헤
 로데왕이뚫고굴으되세례주던요한이죽었다다시살아났습
 으로그런신통호일이있다하며 ㄷ 혹은엘니아라하며혹은션
 지차 | 라하며혹은닐으기를벧적에선지차하나와갸다하되
 오직헤로데논듯고굴으되이논임의버힌바요한이니예죽
 었다가다시살았다하니 ㄷ 이몬져헤로테가일즉사롬을보내
 여요한을잡아옥에가도니이논그아오필넘보의쳐헤로테아
 마가의전호복음서언히

십사

의연고 | 라대개해로테가임의취호였스니 요한이해로테
물간호여골이티네형대의취를취함이을치안라호였더나
일노말미암아해로테아 | 요한을원망호야죽이려호되죽이
지못함은 대개해로테요한이의인이며성인인줄알고공경
호며고호호고그말을드르면만히칭호며또호듯기물깃거함
이려나 일일은못참해로테의성열이라잔치를버리고모든
대부와현부장파및갈닐녀아의귀인을칭호였더라 해로테
아의살이드러와춤추매해로테와밋코치안진자 | 깃거호니
왕이살드려닐녀골이티나 | 무어시던지날드려달나호면나
| 반드시너물주리라 또호밍제호여골이티므롯네가달나
호는거손비록내나라반을달나호여도나 | 반드시너물주리
라호니 | 살이나가더의모드려닐녀골이티나 | 무어슬구호

면도 흐리 잇고 티 답 하야 곁으 티 맛당이 세례를 주는 요한의 머
 리를 구할 지니라 ㉔ 쓸아 급히 드러가 왕의 게나가 구하야 곁
 으 티 청컨대 네 세례 주는 요한의 머리를 쇼반에 노화즉시 나물
 주쇼서 ㉕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임의 밍세를 하엿고 또 혼 혼의 안
 진자 ㉖ 막지 못하게 할 때 ㉗ 왕이 드티 여 휘즈 슈를 호령하 여 요
 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더희 옥에 가서 버히고 ㉘ 머리를 쇼
 반에 담아가 가져다가 썰을 주니 썰이 그 모를 주매 ㉙ 데즈 ㉚ 듯코
 시례를 가져다가 장스 할니라 ㉛ 데즈 ㉜ 모도 혀 예수 색나아
 와 늦치 헹하 던바와 ㉝ 르치던바로 써고 하니 ㉞ 예수 ㉟ 날너
 곁으 샅티 너희 ㊱ 만이 들에 가잠시 쉬라 하니 대개 오고 가 보자
 ㊲ 만히 먹을스 이 업습이라 ㊳ 임의 비를 듣고 ㊴ 만이 들노 가시
 니 ㊵ 모든이 그가 심을 보고 아논자 ㊶ 만흔교로 각읍으로 조차
 마가의 전흔복음서 언히

십오

도보호여 흠씩씩라와가신바에몬져호여모도여나아오니
 예수나오샤모든이틀보시고민망이녀이시니그양이쥬인
 업슴곳흠으로여러가지도리로써구쳐더라날이장춧져
 물때그문도1와셔엿조오티여그가들이오날이장춧져문져
 라맛당이모든이틀헛쳐호야곰스변향촌에가씩들이나사
 먹게호거시니대개먹을거시업슴는이다호니예수1티답
 호시되너희가먹을거슬주라티답호되우리이빅금을가지고
 가서씩을사셔먹이리잇가예수1닐너글은샤테너회게잇
 는씩이얼마나되는뇨너희가셔보라호시니보고와엿조오티
 썩다숫과고기두마리잇습는이다호니이에명호샤모든이
 로호야곰져져히잔디우희안지라호시니이에안지때혹빅
 인식도모히고혹오십인식도모쳐안졌거늘예수1씩다숫

과고기 푸초출가지고 하늘을우러러축언하시고그썩을떼너
 써문도물주어할여곰모든이압희노코또두초고기로서모든
 이예노호시니 다먹고비부르며 넘져지가루와넘져지고
 기를주으니열두광쥬리에그득할매 그썩먹은남조 오천
 명이나되더라 ○ 예수 드티여문도를지축할여비에올나
 몬져더편언덕에건너가벧사이다라할노티너르러모든이들
 을헛쳐보내기물기드리라할시고 모든이들헛천후에산에
 가서기도할시더라 임의저물메비는희중에있고예수 홀
 노언덕에있더니 문도들이역풍에노질항기에틀미우쓰물
 보매밤이스경이나할여예수 바다흘끓고나아오시되마체
 지나가라할듯하니 모든이그바다흘끓음을보고괴물인가
 의심할여부르지지니 대개모든이보고두려워함이라예수
 마가의전환복음서언히

십륙

ㅣ 즉시 더 부러 말슴 하며 날 너 곧 샹티 너 희안심 할라 이나
니 놀나지 말나 하시고 ^{五二} 이에 비에 올라 오시니 바람이 즉시 자
고 모든 이 믿음에 놀남을 이기지 못하며 또 흐리 이히 너 이나 ^{五三}
때 깨 모든 이 석의 기 이 흐렝적 을 씨 닷지 못하니 믿음 이 완 흐 연
고 ㅣ 러 라 ○ ^{五四} 임의 건 너 겐 네 사 렷싸 회 니 르 러 언 덕 에 다 히 니
^{五五} 모든 이 임의 비 를 썬 나 매 사 름 이 알 고 스 방 으 로 두 루 둔 너
상 으 로 씨 병 자 를 메 오 고 예 수 계 신 티 를 알 면 곳 나 아 오 매 ^{五六} 므
뭇 예 수 의 가 신 바 후 촌 과 후 읍 너 와 후 향 촌 에 모 든 병 자 를 저 지
에 두 고 다 한 그 옷 저 락 만 문 짐 을 구 할 야 어 로 문 지 는 자 ㅣ 는 흥
을 었 더 라

예칠장 - 바 리 새 오 와 밋 션 비 수 인 이 예 루 살 념 으 로 브 러 와 예
수 씨 모 든 이 나 아 와 셔 = 그 문 도 수 인 이 손 을 씻 지 아 니 하 고 썬

먹음을 보고 칩망하니 ^三 대더바리새오유대아사롬으로더부
 러모든 빛적 칩에는려음을가지고손씻지아니함면먹지아니
 함며 ^四 저즈로조차도라와만일씻지못함즉먹지아니함고또
 흠여러가지적회여오는법이잇시니곳잔과구리그릇과상을
 씻슴이러라 ^五 이에바리새오와밧션비못즈와골으티네문도
 논엇지함야고인류전함논법을준형치아니함고이에씻지아
 니함손으로써섞을먹는다 ^六 예수 | 티답함야골으샤티이시
 이아의션지자말에너를거쫓착함자 | 라^七 르첫시니진실노
 울도다칙에닐은바와^八 처이빅성들이입으로만나를공경함
 고그^九 믿음인즉나를멀니함논거시니 ^七 사롬의명함논바로써
^八 르침을삼는고로부절업시내게절함논도다 ^八 대개너 | 상
 데의명함을버리고사롬의류전함을잡아잔을씻서이와^九 호
 마가의전함복음서언히

십칠

거슬너 1 만히 힘흐다 함며 又 또 날 벗 시 되너 1 진실 노상 데 의
 명심 을 브 리 고 너 의 류 전 함 는 자 를 호 도 다 함 였 시 니 十 대 개
 모 세 글 으 터 너 1 부 모 를 공 경 함 라 함 요 또 글 으 터 부 를 저 주 함
 며 모 를 저 주 함 는 자 는 반 드 시 죽 이 리 라 함 였 거 놀 十 오 직 너 희
 논 글 으 터 사 름 이 혹 그 부 모 드 러 닐 으 터 네 가 내 게 밧 을 거 솔 나
 1 임 의 골 반 함 였 다 十 는 니 골 반 은 번 역 흘 진 대 꾀 레 물 이 라 十
 이 리 함 고 다 시 그 부 모 를 섬 기 지 못 함 게 함 니 十 이 는 네 밧 은 바
 의 류 전 으 로 써 상 데 의 도 를 폐 함 이 니 이 와 又 함 자 를 너 1 만 히
 힘 함 는 니 라 함 시 고 十 드 터 여 무 사 름 을 불 너 닐 너 글 으 샤 터 너
 희 다 맛 당 이 내 말 을 듯 고 쉼 드 를 지 어 다 十 므 룯 사 름 의 것 처 로
 브 러 오 는 자 는 능 히 사 름 을 더 러 이 지 못 함 고 오 직 그 속 으 로 나
 오 는 자 十 즉 사 름 을 더 러 어 는 니 十 귀 잇 서 듯 는 자 는 맛 당 이 드

를 지어 다 ^七 예수 | 무리를 쫓아 방에 드시매 그 문도 | 비유로
 써 못 조오니 ^八 예수 | 날의 사탄이니 | 그리하여 도쳐 달지 못하
 는 나니 | 엇지 모르는 나므로 밤으로 브터 사룸의 깨드려오는
 자는 능히 더러이지 못함은 ^九 그 믿음에 못지 못함이요 이에 그 비
 에 무덤이 오또 할 외측에 세쳐 그므로 먹엇던 바를 조찰케 하
 니라 ^十 또 골의 사탄 사룸으로 브터나가는 자는 곳사룸을 더러
 이는 니대 더 안흐로 조차나오는 곳은 곳사룸의 믿음으로 조차나오
 는 바 | 니 ^{十一} 악념과 간음과 구합과 흉살 및 할 것들과 ^{十二} 도적과
 탐람과 악독과 궤사와 방랑과 투기와 비방과 교만과 광패함이
 니 ^{十三} 이 모든 악은 다 안흐로 조차오는 거시 니이에 사룸을 더러
 이는 니라 ^{十四} 예수 | 그리로 조차몸을 나르혀 두로 시돈디경에
 가사 ^{十五} 훈집에 드리 가시되 사룸들이 모르게 하시나 기일수업시
 마가의 전훈복음서 언히

십팔

니 ^{二五} 이때 혼지어미잇서되고어린쉴이몹쓸샤귀를들너있더
니예수의일을듯고와서그말아래부복하니 ^{二六} 이저어미논헬
나사롬이니슈로보니사나라희속흔쟈 | 라예수뉘청하야귀
신을쫓츠그쉴을늦게하야달나하니 ^{二七} 예수 | 날너골으샤티
으히들이몬져비부르도록먹기틀기드릴지니 ^{二八} 으히들의먹논
떡을갓다가개의게더짐이올치악니라하니 ^{二九} 지어미티땀
흐야엿즈오티쥬여그러하오나다만밥상아래잇논개가또흔
으히들의눔긴부스력이틀엇어먹는이다 ^{三〇} 예수 | 날으시티
이흔말을인하야너는가히도라갈지니샤귀가임외네쉴의게
써러졌는니라하니 ^{三一} 그잡에도라오매발서샤귀가나가오
쉴만상에누엇심을써다를너라 ^{三二} 예수 | 두로시돈디경을써
나갈닐니야바다희니르러데가볼니디경안흔지내실시 ^{三三} 귀

먹고 어를 혼사 롬을 다 리고 와 거기 손을 어 로 문 저 달 나 고 노 차
 | 엇 거 날 예 수 | 다 리 고 그 만 이 못 사 롬 문 떠 나 가 자 손 가 락
 으 로 써 그 귀 를 어 로 문 지 며 춤 으 로 그 혀 문 지 며 하 날 을 유
 러 러 탄 식 하 야 곶 으 티 엠 와 다 라 하 시 니 번 역 흥 전 때 꽃 열 니 라
 곶 이 라 그 귀 죽 서 열 니 며 그 밋 친 벼 가 풀 서 며 그 할 이 분 명 혼
 치 라 예 수 | 중 인 을 경 계 하 사 하 여 곶 사 롬 의 게 날 으 치 말 나
 하 시 나 경 계 하 실 스 록 모 든 이 서 로 전 파 하 며 모든 이 놀 납 호
 귀 아 곶 을 이 기 지 못 하 야 곶 으 티 그 흥 흥 노 바 자 이 다 착 호 고 로
 귀 먹 어 리 로 하 여 곶 듯 게 하 며 병 어 리 로 하 여 곶 말 하 게 혼 다 하
 더 라

예 팔 장 이 때 못 사 롬 이 극 히 성 하 야 먹 을 거 시 업 는 지 라 예 수
 | 그 문 도 돌 볼 너 날 너 곶 으 사 티 나 | 이 못 사 롬 을 민 망 하 너
 마 가 의 전 혼 복 음 서 언 히

심구

이노니 그날파곳치잇기물임의사홀이매이제먹을거시업슴
 으로써라나만일하여곰주리고저의집으로도라가게홀
 진터로중에필연곤비하라대개그중에멀니셔온자잇는
 니라그문도¹디답하여골²이디이들에잇서어디서씩을엿
 어비부르게하리잇가³예수⁴무리골⁵사디너희씩이얼마
 나잇는뇨디답하여골⁶이디닐곰이니어다⁷예수⁸무리로호
 여곰싸의안즈라하시고씩닐곰을가지고축언하며사태하고
 그문도를주어하여곰논호라하시니드티여못사를압회노코
 또조곰적은고기잇는지라또호축언하며사태하고하여곰
 논호라하시니⁹임의다먹고비부르며그늘어지부스럭이를주
 으매닐곱처롱이오¹⁰먹은자¹¹대강수천인이다예수¹²이에
 무리를호치니라○¹³드티여문도와함께비에올나달마느다

더 경에 너를 너는 바리새 오들이 나와 힐난 할야 하 놀노 조차 아
 롬 다 온 정도를 주심을 구 할야 시 험코져 할 거 놀 예수 | 중심
 에 탄식 할야 글의 사 티이 계상이 엿지 아 롬 다 온 정도를 구 할
 요 나 | 진실 노 너의 계 날은 니 결 단코 아 롬 다 온 정도로써 이
 세 상을 주지 아니 할 리라 할 시 고 드 티 여 써 나 다시 비에 올 나
 더 편 언 덕으로 가 니라 문도 | 석을 진 임을 닛고 비에 잇스 매
 다 만 석 할 나 만 잇 더 니 예수 | 경 계 할야 글의 사 티 너 의 삼 가
 바 리 새 오 의 교 와 다 못 해 로 데 의 교 를 방 비 할 라 할 니 데 즈 |
 서 로 의 론 할야 글의 티 이 는 우 리 가 석 이 업 다 고 할 심 이 니 잇 자
 할 니 예수 알 오 시 고 죽 시 닐 너 글의 사 티 너 희 엿 지 석 이 업 습
 으 로 써 서 로 의 론 할 는 다 너 희 그 리 할 여 도 아 지 못 할 며 써 닷 지
 못 할 니 너 의 마음 이 오 히 려 완 만 할 도 다 너 의 눈 이 잇 서 도 보
 마 가 의 전 환 복 음 서 언 히

이 십

지 못 하는 다 귀 잇서 도 듯 지 못 하는 다 또 흐리 역 지 못 하는 다
나 | 석 다 솟 슬 췌 여 오 천 인 의 게 호 매 너 | 늚 어 지 부 스 렷 이
를 주 어 몇 광 주 리 에 찾 는 뇨 글 으 티 열 들 어 니 이 다 또 널 곱 췌
을 스 천 인 의 게 호 매 너 | 늚 어 지 부 스 렷 이 를 주 어 몇 처 룡 에
찾 는 뇨 글 으 티 널 곱 어 니 이 다 드 티 여 널 너 곱 으 샤 티 그 러 할
면 엇 지 어 닷 지 못 하는 다 벳 사 이 다 에 니 르 시 매 밍 인 을 다 리
고 셔 그 문 저 주 심 을 구 하는 자 | 잇 거 늘 계 수 | 밍 인 의 손 을
잡 고 마 을 밧 기 다 리 고 나 가 그 눈 에 춤 으 로 바 르 며 또 손 으 로 누
루 고 그 뵈 이 논 바 | 잇 는 나 무 르 시 니 더 석 드 티 여 우 러 러 보
며 글 으 티 내 가 보 니 사 름 의 든 니 는 거 시 나 무 굿 도 다 할 거 늘
후 에 다 시 손 으 로 그 눈 을 문 지 고 향 여 곱 유 러 러 보 라 할 시 니 드
티 여 는 흙 을 엇 어 윈 갓 만 물 을 뵈 히 보 는 지 라 예 수 | 보 내 여

그집에도라가라하시며골의샤티마을에드지말며마을가온
 데잇논샤롬의게옴가지말나하시다 예수그대조로더부
 러개이사례아필님보모도헌마을노가실식으로중에서그대조
 드려무리골의샤티샤롬의말이나를취라하시더뇨 티답하시
 엿조오티세례를배프던요한이라도하시며혹은엘니아라도하
 고혹션지자의하시라도하시더이다 이에닐너골의샤티오
 직너희는나를취라코말하시뇨베드로티답하시야골의티너
 는그리스도이니이다하시거늘 예수경계하시야곰샤롬
 의게고치못하게하시니라 이에골의샤티인조반드시해
 를만히박어장로와제스와모든션비들의브린바되고또죽
 임을당하시되다만사흘후면반드시다시살어나심을닐으시니
 이말씀을분명이말하시매베드로드티여잡고간하되
 마가의전흔복음서언히

이십일

예수 1 데즈 들을 도라 보시며 베드로를 썩지림 하샤 골으샤 디
 시란은 나의 뒤흐로 물너 잇스라 너는 상대의 정을 몸 밧지 아니
 하고 이에 사롬의 정이로 다 하시고 ○ 드덕 여무리와 다 못그
 예즈를 부르샤 날 너골으샤 디 무릇 나를 좃고져 할진대 맞당이
 몸을 어긋여 그 십자가 물지고 써나를 조철 거시니 대개 제성
 명을 구코져 하는 자는 반드시 업시 하려니와 다만 나와 밧복음
 을 위하야 성명을 일흔 자는 반드시 구하리라 사롬이 만일 텨
 하를 엿고 더 성명을 일흔 전대 무슴 유익함이 잇스려 사롬이
 장춧 무어 스로써 제 성명을 밧고 겐느냐 대개 이간 악흔 인간
 에 무릇 나와 밧나의 도를 밧그림개 아논 자는 인자 1 내부의 영
 화로써 모든 거룩한 스자로 낫치림 할 때에 또 현이 사롬을 밧그
 립게 하리라

데구장 - 예수 - 또 날 너 곧 이 사 터 나 - 진실 노 너 회 계 날 이 노
 니 여 괴 선 사 동 이 장 초 죽 지 아 니 하 고 상 데 나 라 회 권 으 로 림 흥
 을 보 리 라 하 시 고 ○ = 룩 일 을 지 나 예 수 - 베 드 로 와 야 고 보 와
 요 한 을 거 느 리 시 고 2 만 이 눕 혼 산 에 오 르 사 그 압 회 계 서 변 화
 하 시 니 3 그 옷 식 광 처 찬 란 하 여 빅 설 4 하 니 세 상 의 션 닐 하
 스 로 눈 이 5 처 활 수 업 더 라 6 이 때 에 엘 니 아 모 세 더 들 의 게 나
 타 나 써 뵈 이 여 예 수 로 더 부 러 말 습 하 니 7 베 드 로 - 예 수 색 었
 즈 와 곧 이 티 스 승 아 우 리 가 여 괴 잇 는 거 시 도 흐 니 우 리 들 노 하
 여 짐 세 흘 지 어 하 나 혼 너 틀 위 하 고 하 나 혼 모 세 돌 위 하 고 하 나
 혼 엘 니 아 를 위 하 자 하 나 8 그 러 나 스 스 로 날 이 는 바 돌 아 지 못
 하 야 세 문 도 - 두 려 옴 이 심 하 더 니 9 못 참 구 림 이 2 리 우 고 소
 티 잇 서 구 림 속 으 로 부 러 나 와 곧 이 티 이 는 나 의 스 랑 하 는 이 들
 마 가 의 전 환 복 음 서 언 히

이십이

이니 너희는 맛당이 드물지어 다하니 문도 | 도라서 서보니
 홀연이 혼자 사람도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 | 저기와 혼자 가지로 있
 슬 사람이라 ○ 산애는 필때에 예수 | 경계 하여 글으샤 티
 본바로써 사람의 게고치 말기를 나 | 죽음으로 브터 다시 살아
 나가서 지하라 + 문도 | 이 말을 숨기고 흠뻑의 론하되 죽음으
 로 브터 다시 살아난다 하심은 무슨 뜻이신고 + 이에 예수께 맞
 지와 글으되 선비들이 말하기를 엘리아 | 맛당이 묻지나 르리
 라 하였다 하니 었지 흠이니 잇가 + 예수 | 티 답하야 글으샤 티
 엘리아 | 반드시 묻지나 르리 써 다시 모든 일을 진과 할거시오
 또 호척에 인자를 두고 날 벗어나 되 반드시 고초를 만히 밧아 사람
 의 경홀이 너임이 되리라 하였시니 + 나 | 진실로 네게 날으노
 니 엘리아 | 밧서 왔스되 무슨 사람이 임의로 티 접하기를 칙에

르친 것 파곳치 하였는 나라 ○ 임의 그 문도의 게나 아가시니
 사 롬들이 돌나서 고또 혼 선비들이 더부러 변론하더라 여러
 히 혼번예 수를 보매 심히 놀나 압희 추창하야 문안하니 예수
 | 선비들의 게 무러 굴으샤 티너 회들이 혼가지로 변론함은 엇
 짐이뇨 하시니 이 중에 혼 사 롬이 티 답하 여 엇조 오 티 부조야
 나 | 나의 아들 을 다 리고 네 게로 가다가 제가 샤 귀의 게 짐 혀 범
 어 리 되 었 스며 무론 어는 곳이 던 지 잡으면 죽 시 너 머져 침을
 흘 니 며 니 틀 갈 아 씨 므 르 기 에 니 르 매 나 | 일 즉 이 네 문 도 를 청
 하 야 췌 여 달 나 하 되 제 가 능 히 못 하 더 이 다 예수 췌 셔 티 답 하
 샤 티 밋 지 아 니 하 는 세 상 이 로 다 나 | 너 희 와 못 치 잇 가 를 맛 당
 이 어 는 때 서 지 하 며 나 | 너 희 를 참 음 을 맛 당 이 어 는 때 서 지 하
 리 오 또 혼 다 리 고 내 게 로 오 라 하 시 니 그 사 롬 이 드 티 여 다 리
 마 가 의 전 혼 복 음 서 언 히

이십삼

고와서 임의 예수 선회 오매 사귀즉시오 구려지며 싸회업드려
져 구울며 춤을 흘니니 三 예수 一 그 아버지의게 무러 글으샤 디 제
가 병든 지 얼마나 되었느냐 디 답하야 엿조오 디 조고 마하엿실
때로 브러 시작호오니 三 여러 번 불과 물에 더져 업시코져 하엿
는 이 다만 일너 一 능히 흘수 잇거든 나물 불상이 너여나를 도아
주소셔 하니 三 예수 一 널너 글으샤 디 너 一 만일 능히 밋은즉 밋
논이의게 능히 못 흘거시 업는 나라 하시니 三 그 아버지 즉시 눈
물을 드리우고 불너 글으 디 주여 밋스오니 너는 나의 밋음이 독
실치 못함을 도와 주소셔 三 예수 一 여러히 추창하야 모함을 보
시고 즉시 잡귀를 쫓지저 말숨하야 글으샤 디 너는 귀먹고 말 못
하논 귀신이나나 一 네게 명하노니 그리로 나가서 다시 드지 말
지니라 하시니 三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오구려 떠리고 이에 나

가니 ○ 히 죽은 것 못 치 되었스되 사 롬 들 이 만 히 날 ○ 되 제 가 발
 셔 죽 었 다 하 더 니 ○ 예 수 ○ 그 손 을 잡 아 붓 드 니 제 드 되 여 님 러
 나 더 라 ○ 임 의 집 에 드 러 가 시 매 데 즈 ○ 종 용 이 못 즈 와 곁 ○ 되
 우 리 는 엇 지 하 여 능 히 쫓 지 못 하 는 니 잇 가 ○ 예 수 ○ 날 너 곁 ○
 샤 되 만 일 괴 도 하 고 벽 곡 하 지 아 니 하 면 이 련 류 는 시 러 금 내 여
 보 내 지 못 하 는 니 라 하 시 더 라 ○ 이 에 그 곳 을 쫓 나 샤 갈 날 니 아
 를 지 나 실 시 사 롬 의 게 알 니 고 자 아 니 하 샤 ○ 데 즈 들 의 게 날 너
 곁 ○ 샤 되 인 즈 ○ 장 초 사 롬 의 손 에 붓 치 이 여 죽 일 거 시 오 죽 인
 지 삼 일 후 면 더 ○ 반 드 시 다 시 살 니 라 하 시 니 ○ 데 즈 들 이 이 말
 숨 을 쫓 닷 지 못 하 고 또 흔 감 히 못 지 못 하 더 라 ○ 예 수 ○ 가 베
 화 온 에 니 르 샤 집 에 계 셔 데 즈 들 의 게 무 러 곁 ○ 샤 되 너 희 중 에
 서 서 로 닷 든 거 시 무 어 시 나 ○ 데 즈 들 이 묵 연 흠 은 로 상 에 서 뉘
 마 가 의 전 흔 복 음 서 언 히

이십사

가 데 일곤이 될 거슬 닷흠이 러라 ㄴ 예수 | 안지 사십이 데 즈를
불너 널너 글으샤 디머리가 되고 자하논이 는 반드사 모든 사룸
의 썻치 되고 모든 사룸의 하인이 되리라 하시고 ㄴ 예수 | 드디
여 흠어 린으 히를 드려다가 모든 사룸가 온디 노코 또 흠안흐시
고 예즈들의 게닐너 글으샤 디 ㄴ 므룻나의 일흠으로 써어긋 혼
흠어 린으 히를 접디하논이 는 곳나를 보내신어 들접디 흠이 니
라 ○ ㄴ 요한이 엿즈와 글으티스 승님옥리들이 보니 흠사룸이
네 일흠으로 샤귀를 썻치내해가 우리물을 좃지아나하매 우리
들이 금하엿스오니 그우리를 좃지아나하옵쉬옵이 니기다 ㄴ
예수 | 글으샤 디 금하지말나 대개나의 일흠으로 써령적울 형
흐면 참아엇지나를 경멸하코 비방하겟느냐 ㄴ 므룻나를 치지
아니하논이 는 우리를 향하논이 오므룻나의 일흠을 의탁하여

혼 잔물 노너를 먹임은네그리스도에속함을인함이니
 진정으로네게닐으는니더
 1 반드시상밧음을일치아니하리
 라
 2 으랏나를밧는적은
 3 히를죄에빠지게하느니
 4 출하리
 밧들을목에미여바다희더짐이도흐니
 5 만일네혼손이죄에
 6 빠지게하거든곳살허브릴지어다출하리
 병신으로턴당에들
 지언덩늑손을가지고디옥의멸치아니하느니라
 7 불에들지말지라
 8 거괴잇스면버레도죽지어니하교불도멸치아니하느니라
 9 만일네혼발이죄에빠지게하거든곳살허브릴지어다출하
 10 리절며턴당에들지언덩두발을가지고디옥의멸치아니하느
 11 나
 12 불에들지말지니라
 13 거괴잇스면버레도죽지어니하교불
 14 도멸치아니하느니라
 15 만일네혼눈이죄에빠지게하거든백
 16 허브릴지어다출하리
 17 눈으로턴당에나아갈지언덩두눈을
 18 마가의전환복음서언히

이십오

두고 더욱 불에 더지 말지니라 ^{四八} 거기 잇스면 버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멸치 아니하는 나라 ^{四九} 대개 사룸마다 받드시 불노써 저리며 재물마다 받드시 소금으로 써저리는 나 ^{五〇} 저리는 거시도 귀니와 다만 소금이 제맛슬 일흐면 엿지 써저리 리오너희 속에도 소금이 잇스리니 맛당이 서로 화합할지니라

데십장 - 예수 | 니러나샤 그리로 조차요 단 밧그로 가서 유대 아디경에 니르시니 못사룸이 다시 모히매 예수 | 다시 여상이 ^一 그르치실시 ^二 바리새 오들이 잇서 예수 를 시험코져 하야 나와 못즈와 글으 ^三 티사룸어 안히 물브림이 가하니 잇가 ^四 티답하야 글으샤 티 모세엿더케 너희게 명하엿더나 ^五 그사룸들이 모세의 전하는 글을 써주어 브리기를 허락하니이다 ^六 예수 | 티답하야 글으샤 티 너희 무음이 모절므로 너희를 위하야 이명을

쓰섯거니와 다만기벽하던 처음에 상대점지하사 남너를 만
 드르시니 일노인하야 사름이 맞당이 부모를 썬나고 그 안하
 의 환하야 들이 혼몸이 될지니 이러하면 다시 돌이아니 되
 고 이에 혼몸이 되느니라 그러하죽상대가 썬하이는 가히는 호
 재 못하거시니라 집에 계시매 데즈다시 이 열노씨 못즈 온
 티 예수닐 너골으샤 뒤르듯 안하를 브리고 달나장가 드는
 이 혼몸을 범함이 오안히 저아비들 브리고 거가 하논이 도
 또 혼몸을 범하느니라 ○ 어린히들 다리고 예수씩나아
 와어로만져 달나하느니라 잇거늘 데즈다리고 온이 들척하
 니 예수 혼몸보시고 잇거아니하샤 닐너골으샤 뒤어린
 히나 게오느거술만 이 두고 금하지 말나대 개상데 나라 회잇
 은이 혼몸히이사름주하느니라 진실노너희게 닐은느니라
 마가의 전 혼몸은서 언히

이십륙

뜻어린으 히긋지아니 하고 상대 나라 흘밭드논 자는 시러곰 드
지못하는 나라 하시고 ^가이에 안고 그우회 손을 다히시고 죽어
하시더라 ○ ^가임의길희나 오시니 할사 롱이 잇서 압희 추창하
야 싹러 못즈 오티 착흔스 승님 아내가 맛당이 엇지 할녀 야 상함
불스 흠을 엇으리 잇고 ^가예수 1 닐너 곶으 샤티네 1 엇자 할야
나를 착흔다 닐긋는 나 상대 외에 는 할나 토 착흔여 업는 나라 ^가
너 1 모든 명을 아논 다음 난치 말며 살해치 말며 도적질 말며 헛
뎡세 말며 불의로써 사 롱의게 휘쳐 말며 배부 모 들공경 할라
엇는 나라 ^가티 답하 여 곶으 티스 승님이 논나 1 어려서 브터다
직희엇는 이다 ^가예수 1 도라 보시고 사랑하 사 닐너 곶으 샤티
너 1 오히려 할가 지가 부족하 니 과셔네 게 잇는 거 슬 짜 라 씨 간
난 혼이의 게 구 제 상면 반드 시 지 물을 하 늘에 둔 거 시 오 또 혼와

서십자가를 질머지고나를 좇치라 하시니 三 그 사람이 말씀을
 인하여 안식이 천연하여 가니 이는 그 재산이 만흠이러라 三 에
 수 一 도라 보시며 데즈드려닐니 곧 一 사 디 지물잇는 자 一 상 데
 나라 희들기 어렵도다 하시니 三 데즈 一 그 말씀을 이 상이 너 이
 더니 예수 一 다시닐니 곧 一 사 디 사랑하온 아들들아 지물을 밋
 고 상 데 의 나라 희들나 하면 어렵도다 三 약 디 가 바늘 귀로 나가
 는 거시오 히려 부즈가 상 데 나라 희들기에서 더욱 쉬오너라 하
 시니 三 데즈 一 더욱 피이히 너 여서로닐니 곧 一 디 그러헌즉 누
 능히 구할 심을 었을고 하시니 三 예수 一 더 들을 보시고 곧 一 사 디
 사람으로 본진설노 능히 못하시니 와 오직 상 데로는 능히 못할
 바 一 업느니라 하시니 三 베드로 一 었즈오 디 우리 들은 임의은
 갓거 솔내여노코너를 좇노라 하시니 三 예수 一 디 답하시니 곧 一 사
 마가의 전헌복음서 언히

이십칠

되나 | 진실로 내게 날으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야 짐이며 혹
형대며 혹 즈미며 혹 부모며 혹 처지며 혹 단단을 떠나는 이는
금세상에서 집과 형대와 즈미와 모즈던 답을 빅비나 더엇지 아
닐이 업고 혹 세상에 장성을 엮는 일이 잇스리나 ㄷ 대개 압섯던
쟈 뒤가 되고 뒤섯던 자 | 압되리가 만하리라 ○ ㄷ 예루살렘에
올나가실 때에 길희셔 예수 | 모든 이 압희거러 가시니 데즈 |
쓰라 갈석 놀나며 쓰흔 두려워하니 예수 | 다시 십이 데즈를 다
리시고 장춧즈기 몸의 당할 일노 써닐너 ㄷ 글은 사되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올나가면 인즈 | 장춧제의 제장과 및 선비들의
게 맞기이여 더들이 죽이기로 써명하코 쓰흔 장춧이 국인의 게
맞겨 주며 ㄷ 더 | 장춧릉 육하하며 미로치며 춤밧흐며 죽일거시
로 되다 만데 삼일에 반드사 다시 살나라 하사더라 ㄷ 제비티아

들야고보와요한이나아와골으티스승님우리구하는바를하
 실진티너 | 우리를위하야행하쇼셔 三六 예수 | 날너골으샤티
 날드려너희를위하야무어슬행하라하는나 三七 티답하야골으
 티우리들을네영화로올때에하나흔네우편에안치고하나흔
 네좌편에안쳐주소셔 三八 예수 | 날너골으샤티네구하는바를
 너 | 알저못하리라나의마시던잔을너 | 능히마시며나의밭
 던세례를너 | 능히밭을소냐 三九 티답하야골으티능히하리이
 다 예수 | 날너골으샤티나의마시던잔은너 | 진실노장춧바
 실거시며나의밭던세례는너 | 진실노장춧바를거시나 四〇 다
 만나의좌우에안침은내가줄거시아니오다만이위를임의마
 련하여노흐신이가주리라하시니 四一 열대즈 | 듯고야고보와
 요한을도화아니하거늘 四二 예수 | 불너날너골으샤티너 | 이
 마가의전흔복음서인히 四三

이십팔

국에 돕혀 님금 된 이가 쥬장 하며 곤이 깨다 스림을 아는 나 다
 만너 희중에서는 이긋치 흠이 가치 아니 하니 큼이 되려 하는 이
 는 반드 시네의 부리 임이 될 거시며 너 희중에 머 리 되려 하는
 이는 반드 시 모든 의 하 연이 될 지니 대개 인즈의 널의 심은
 사 림을 부리 심이 오이에 사 림의 깨 부 리 이고 또 혼 산 목숨을 노
 하 여러 사 림을 위하 여 속량 흠이 나 라 예 리 고 에 니 르 러 예 수
 데 즈와 밋 여 러 무 리 흠 색 에 리 고 에 서 나 오 시 니 쇼 경 바 티 마
 요 는 디 마 요 의 아 들 이 라 길 그 희 안 저 구 결 하 더 니 나 사 텍 사
 림 예 수 라 흠을 듯 고 죽 시 불 너 글 으 디 다 위 의 즈 손 예 수 는 나
 를 불 상 이 너 이 쇼 서 하니 여 러 사 림 이 썩 지 저 입을 담 을 나 혼
 디 그 사 림 이 더 옥 크 게 불 너 왈 다 위 즈 손 은 나 를 불 상 이 너 이 쇼
 서 하니 예 수 머 르 시 고 사 림 으 로 하 여 곱 브 르 시 니 사 림

아드티여쇼경을브르며닐너골으티네^五무음을편안이향고니
러나라예수씨셔너틀브르신다향니^五쇼경이웃솔브리고니
러나예수씨나아오니^五예수^五닐너골으샤티너^五날드려무
어솔향고져향는나쇼경이티답향야엇즈오티쥬여나^五보기
틀엇고져향는이다향니^五예수^五닐너골으샤티갈치어다네
밋용이너를쾌히늦게향니라향시니그사름이즉시봄을엇어
예수를길희셔조치니라

예심일자 - 예루살렘에갓가와임의벧파게에니르러벧야니
아^五에밋쳐엘나온산이갓가오매예수^五매즈두시름을보내시
며^五말씀향여왈너^五더넘어음^五니에가셔겨유드러가면반드
시적은나귀삭기를밧거솔맛나리니아모도튼사름이업스리
라글너셔쓰올고오라^五만일사름이너드러엇지그리흠을못
마가의전흔복음서언히

이십구

는이잇거든즉시골으디쥬구하신다하면그사롬이반드시
 보내여가져오게하리라하시니 데즈가본즉파연적은나
 귀문밖뚝길스이에미이엇거늘즉시가셔쓸으니 것히두어
 사롬이섯다가닐너골으디나귀를쓸너무엇하려하느뇨하거
 늘 데즈 예수^六의명하신대로티답하니그사롬들이허락하
 거늘 이에적은나귀를쓰을고예수씩가셔제옷슬그우회언
 고예수이르시니 여러사롬들이잇서넘엇던옷스로써길희
 쌀며혹나모가지틀쳐길희퍼고 압히서고뒤희쓰르며호창
 하여골으디호산나홀자쥬의일홍을의탁하여오는이^七는복이
 로다 + 옥리조상다위나라쥬의일홍을의탁하여오는이^八는복
 이로다호산나이지극헌우회계신이의게잇는이라하더라
 예수 예루살렘에나아가샤던에드러가샤 모든물건을들너

보시고 임의 저물매 십이대조를 다리시고 나와 벳아니아에 니
 르시니라 ○ ¹²잇른날 벳아니아를 떠날시 예수 십장홀샤 ¹³
 멀니 무화과나 모의 남히잇숨을 보시고 나가 샤혹 그 우희가
 히엇을 거시잇슬가 할야 더나아가셔 보시매 다만 남스귀만 잇
 스니 대개 열미니 올때가 되지아니 홀이러라 ¹⁴예수 십나무드
 러닐너 글으샤 디이제 후로는 사람이 네 열미를 먹을이 업스리
 라 하시니 데즈들이 다 드르니라 ○ ¹⁵임의 예루살넴에 니르샤
 예수 십던에 드러가던에 계셔 모든 무역하는 자를 쫓치고 돈
 밧논자의 문서상과 밧합도 풍는자의 고의를 업지르시며 ¹⁶또
 홀제구를 가지고 던중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¹⁷이에 이르
 쳐닐너 글으샤 디척에닐으지아니 할엿더냐 짐은 반드시 만국
 의 괴도 할는 집이라닐코를 거시어 늘오직 너희는 도적의 보금
 마가의 전한복음서언히

삼십

자리를 삼으리라 하였는 나라 하시니 선비와 밋제스제상들
이 이 일을 듯고 엇지 써 죽일고 쉼하니 대개 두려워함이 모든 이
그 요를 신기히 녀이논 연고를 언함이 러라 임의 저물어 예
수 성에 나아와 잇른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며
보니 썰이로 브터 말넛거늘 베드로는 생각하고 었즈와 같이
더부즈 여청견대 보쇼셔 너 저주한 바 무화과 나무가 밋셔 말
넛는기다하니 예수닐너 같이 사되 너 맛당이 상에 밋
을지 나라 진실노 너 두려닐은 나 모르이 산을 명하야
옴겨가셔 바다의 더지이라 하였며 무음에 의심치아나 하면 이에
말흔대로 반드시 되리라 밋은 죽그 말흔대로 반드시 되니 나
나 이런고로 너 두려말하느니 기도할 때를 당하야 무어 살구
힘을 의로치말고 그가 히엿을 줄노 밋은 죽반드시 엿으리라

네가 서서 기도 할 때에 만일 사름으로 더 부러 혐의 있거든 맛당
 이 푸러 준즉 너의 아바님 하눌에 계신이 도또 혼네 허물 불 푸러
 주시느나 ㄷ 만일 네가 푸러 주지 아니호디 경이면 너의 아바님
 하눌에 계신이 또 혼네 허물을 푸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ㄷ
 예수 | 다시 예루살렘에 나르샤 면에 거니시더니 제스제 장파
 선비 장로들이 나와 무리 글으되 네 무삼 권으로써 이러케 하
 며 누가 너들이 권을 주어 가히 이를 힘하게 하뇨 ㄷ 예수 | 되 답
 하야 글으샤 되나 | 또 혼말노써 내게 무르리니 | 내게 되
 답하면 나 | 무삼 권으로써 이를 힘함을 내게 닐으리라 ㄷ 요한
 의 제례를 하눌노 조차는 다 사름으로 조차는 다니 | 내게 되 답
 하라 하시네 ㄷ 그 사름들이 만이 서로의 문하 여 글으되 만일
 하눌노 조차는 다 하면 | 반드시 글으되 그러면 너 | 엇지 밋지
 마가의 전 혼복음서 언히

삼십일

아니 하느나 할 거시오 三 만일 사름으로 조차다 하면 박성을 두
려워 하느나 박성들은 다 요한으로써 참선지자 一 라 함이라 하
고 三 드터여 예수씨 디 답 하야 글으 디 우리들은 모르노라 하니
三 예수 一 닐너 글으 사 디 그러 하면 나 一 무슴 권으로써 이룰 힘
힘을 또 혼네게 닐으 지 아니 하리라 하 시니라

예십이장 - 예수 一 비유로써 여러 사름의게 말 승하야 글으 사
터 혼 사름이 잇서 포도원을 심으 고 올라 리로써 득 루고 술 단 드
는 들을 노코 랍을 세우고 원 두 한의게 도지 주고 드터여 원 방에
갓다가 二 때 밋치매 혼 하인을 보내여 원 두 한의게 맛당이 밋을
포도실과 들 밋으 려 하엿더니 三 원 두 한이 잡아 쓰려 하야 곰 그
저도라가게 하고 四 다시 다른 하인을 보내여 나가니 원 두 한
이 들을 더저고 머리를 상 하야 하야 곰 육을 보고가게 하여 五 또

출하한을보내너원독한이죽원지라후에하인을만히보내너
 원후한이후치기도할며후죽이기도할고 오히려귀할며
 논아출할나하잇논지라못참내보내며싱각할되더니반드서
 내아들은더접할리라할였더니 그원두한들이서로말할되
 이는그아들이니오거든죽이면그산업이우리게도라오리라
 할고 도되여잡아죽여동산밭과버렸더니 동산주인이장
 찾니르러원두한을멸하고동산을다른이의게맞기니 성서
 에닐넛시되장인버린들이집모퉁이에머리들이되게할리니
 이는주색셔일운바내눈에잇서괴특함이되리라할너너
 일죽이늬지못할였너 그사롬이예수가이비유를베푸
 러써즈괴를그르치심을알고잡고져할나모든사롬을두려워
 할야드되여그져나아가니라 후에바리새오들파다못해
 마가의전환복음서언히

삼십이

로테의당이 두어 사람을 보내 여나아와 그 형사는 말씀하시라
 넓으려 홀석 오더니 엿즈오되 스승님 우리들이 너를 진인으
 로 보오니 대끼네가 열골노써 사람을 취치아니 형시고 진심으
 로써 상대도를 전하는지라 세불가이사씩 밧침이 맛당호오리
 앓가 드리라 잇가 드리지아니 호오리 잇가 예수 그간 샹호
 을 알으사 고닐너골으샤되너 엿지나틀시험하는나금전호
 나 혼나를 갖다 주어 보게 할라 호신대 드티여 가져오거늘 배
 수 1 날너골으샤되이화상과 호 1 뒤호여러히되담호여골
 으미가이사니아다 예수 1 날너골으샤되가이사의물건은
 가이사와의게도라 보내 표상대의물건은 상대씩로모라보낼지
 나라호치니그사롬들이상이너이다라 사두기오사롬이
 엿시나아는말하기를하시살미업다호는자 1 화와셔못츠와

곧 이르스 승남 모세 글 노 우리 개 비 여 날 넷 시 되 만 일 사 롱 의
 형 데 죽 으 매 처 만 잇 고 아 들 이 업 거 든 그 형 데 중 에 그 처 를 취 하
 야 즈 손 을 세 워 넷 게 하 라 하 였 는 니 형 데 철 인 이 잇 는 터 맛 이
 처 를 취 하 야 즈 석 이 업 고 죽 으 매 그 들 재 취 하 야 또 혼 즈 석 이
 업 시 죽 고 그 셋 재 도 또 혼 그 러 하 야 이 러 케 날 곱 사 롱 이 취 하
 야 다 즈 석 이 업 요 그 후 복 인 도 또 혼 죽 으 면 다시 살 때 에 니 르
 러 이 계 집 이 누 계 집 이 되 리 잇 가 대 개 그 날 곱 사 롱 이 다 었 었 는
 이 다 예 수 이 터 답 하 야 글 이 사 터 너 희 성 서 와 다 못 상 데 의 조
 화 를 모 로 는 고 로 이 리 흠 이 나 었 지 그 르 지 아 니 하 나 대 개 죽
 은 후 로 조 차 다 시 살 때 에 는 장 가 도 아 니 들 고 식 점 도 아 니 가 고
 하 놀 에 잇 는 스 즈 못 하 니 죽 은 자 다 시 살 물 론 난 홀 진 대 너
 외 모 세 글 에 극 중 편 에 실 어 노 혼 바 물 너 지 못 하 였 는 나 죽 시 상
 마 가 의 전 혼 복 음 서 언 히

삼십삼

예 모세를 명하여 사귀는 사귀는 곳 아브라함의 상에 오이사악
 의 상에 오야곱의 상에 라하니 ㄷ 무릇 신은 죽은이의 신이 아니
 오산이외 산이 아니런고로 너희 그룹이 심하니라 ㄷ 흘선비잇
 서 왔다가 그 서로 하는 슈작을 듯고 또 호예수의 대답하심이다
 연함을 보코이에 못죽와 글이 터 무어시 모든 계명 중에 웃듬이
 되리잇가 ㄷ 예수이 대답하여 글이 사귀 모든 계명 웃듬에 하였
 시되 어스라엘아드르라 주는 곳 우리들의 신이라 호 주시니
ㄷ 너나 맛당이 만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며 곳 너 화신을 사랑하라 하였시니 이웃들 계명이오
ㄷ 그 다음도 또 호 그와 거처 맛당이 남은 사랑하기 물제 몸 거처
 할라 하였시니 계명이 이들에서 더 큰 거시 잇지 아니하니라 ㄷ
 선비들이 엿죽와 글이 터 기록하시도 소이다스 승님이여 네 말

○ ^{三九} 예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데십삼장 예수 | 던애나실시호대조 | 잇서엿조와골은티
 스승님보쇼셔이돌이엇더호오며이집이엇더호오니잇가 =
 예수 | 닐너골은샤되너논이집의큰것슬보느냐장춧돌호나
 흘돌우희노코무너지지아니홈이업스리라 ≡ 예수 | 엘나윤
 산에게셔던을향하여안져계사더니베드로와야고보와요한
 과안드레아 | 그한이못조오티 ≡ 청컨대우리들의게닐너주
 쇼셔어는때에이거시잇스오며또호이일이다못치려호면무
 슴징조 | 잇스오리잇가 ≡ 예수 | 티답하여골은샤되너논힘
 혀사룸의게호호바 | 되지말지니라 ≡ 대더장춧여러사룸이
 나의얼호을거쫓닐것고와셔닐너골은티내가그리스도로라
 할예만혼사용들을혹하게호를거시오 ≡ 또호싸호는것파싸호
 는소문을듯거든두려의말나대더이일이반드시잇솔거시오
 마가의전호복음서언히

삼십오

되다 만 마지막의 한은 너 르지 아니 하였는 나라 장춧빚성이
너 러나 빚성을 치고 또 혼 나 라 흘치며 도쳐 에 반 드 시 디
진이 잇고 또 혼 혼 년 파 변 난 이 잇스라 니 이 거 시 고 로 음 의 시 작
이 니 라 너 희 맛 당 이 스스로 삼 갈 지 어 다 사 름 이 장 춧 너 를 공
회에 처치 하며 너 틀 회 당 에 서 쓰 릴 거 시 오 또 혼 너 희 장 춧 나 의
연고 로 하여 왕 후 의 압 희 잡 혀 가 저 씨 증 거 가 되 러 니 와 다 만
복 응 을 받 드 시 몬 처 만 국 에 전 흥 거 시 오 또 혼 신 으 러 너 를 잡
아 갈 때 에 몬 처 었 더 케 말 디 답 흥 고 념 려 말 며 또 혼 허 리 상 양 흥
지 알 고 다 만 그 때 에 너 희 게 주 신 바 대 로 만 쓰 라 말 을 흥 거 시 니
대 더 네 가 스스로 말 흥 는 거 시 아 니 오 이 에 성 령 이 시 니 라 형
데 장 춧 형 데 틀 죽 이 기 에 처치 흥 고 아 비 가 지식 의 게 또 혼 그 리
흥 며 지식 이 장 춧 너 러 나 부모 를 처 서 죽 이 기 에 니 몬 며 너

장 갖추나 의 일 흠을 위하야 여러 사람의 게워워움을 볼 거시니 다
 만홍상춤기틀나 종사지니 르는 자는 구하야 몸을 엮으리라
 너 | 만일 뷔터만 되어 즉시 선지자단이 엘말훈바와 곳치서 지
 아니 흠곳에 선거슬보거든 늙는 자 | 맛당이 생각하야 이때에
 유대아에 잇는 자는 산으로 피하고 | 집우희 잇는 자는 방에
 려오지 말며 드러가서 물건을 쓰어 내지 말며 제집에 나가고
 밧희 잇는 자는 옷슬가질너도라가지 말지니 | 이때에 으히 비
 고젓먹이는 자 | 불행하리라 | 다만 너희맛당이 기도하야 겨
 울에도 망하기를 면할 거시니 | 대더이날 장 갖추환난이 잇서 되
 사데가 설시하심으로 이와 곳함이 업고 후에도 또 훈잇지 아니
 하리니 | 만일 유익서 조곰이 날을 감하시지 아니 하섯더면
 못혈귀 잇는 자는 구함을 엮을 이 업슬 거시언마는 다만 그 싸신
 마가의 전훈복음서 언히

삼십륙

바자를 위하샤 이날을 조곰 감하신 거시니 이 때에 만일 너 드
러 말하논 이 잇서 곧 이 덕 보라 그리스도가 여긔 잇다 혹 더 잇
다 하여도 너 회고 지듯 제 말나 대 더 장 찾거 쫓고 그리스도와 거
찾션 자자 | 내려나셔 신과 혼을 뵈여 만일 가히 간 션 자를 후 할
만 하면 후 할 거시니 너 회 맛당이 스스로 삼갈 지어 다나 | 너
드려 날으는 니 이 때를 당하야 이 환난 후에 는 히가 어 돕고 들
이 빗치 업고 하 놀의 별이 썩러 지고 하 놀이 진동 하고 이 때
에 장 찾인 자 | 큰 권세와 큰 영화로 구름을 두르고 음을 모든 이 볼
거시니 이 때에 반드시 그 스자를 보내여 그 간 션 자를 싸 닳츠
로 브터 하 놀 닳츠 지스 방에서 모 후 거시니 이제 무 화 파 나무
의 비유를 비화 브야 흐로 그 가지 부드럽고 넓히 명동 하 거 든 하
절이 갖가 온 지 알 거시니 기와 갓치 너 | 이런 일이 잇습을 보

거든 그 때 가갓가 온지 알나 아에 문에 밋찬 거치니라 루나 | 친
 실노너 희게 날으는 나이 때 가가지 아니 할 여셔 이 알이다 일우
 리니 르 댤디는 반드 사업 슬지 언딩내 말은 반드 사업 서지 지아
 니 할지라 르 다만 그 날 파그 시는 아논 사름이 업스리니 하늘에
 잇는 스자 와 아들 도 또 혼아 지 못 할교 다만 아버지 니 알으시느니
 타 ○ 르 조심 할 여 썩여 기도 할 거시너 너 희고 괴 악을 모름이라
르 므릇 인즈는 비컨대 사름이 그 집을 멀니 쳐날 때에 권을 그 종
 의 깨 주어 각각 일을 맛기 고 문직이 틀명 할 여 썩여 잇스라 루나
 논이런 고로 맛당이 셀지 어다 접 줌인 이어는 때 후져 물게 나 후
 밤중이나 후침을 때 나 후침을 때 에 니 틀지 모르니 르 저 푸길 때
 그 졸디 에 니 르러 너 희 잠 들물 당 할 가 호느니 르 나 | 이제 너 의
 깨 말 혼바 자를 또 혼서 여러 사름의 게 날너 잠은 곳 썩느거시니
 마가의 전 혼복음서 언히

삼십칠

라

레침삭장 다음잇튼날은유월절이라제교절일에제스제장
과선비들이귀출흔씩으로써예수를잡아죽임을게교홀시
다
만글으되절일에논못홀거시빅성이난을낼가두렵다홀더라
○ 예수¹벳아니아에게셔창병가진시몬아란사롬의집에
자리를알고안져진지잡스오려홀시홀녀인이잇서육합에다
가감업시귀홀날²란기름을가지고와육합을취치고기름
을예수의머리에부으니³ 두어사롬이있다가깃거아나홀여
글으되엇지이런기름을헤피쓰는고⁴ 이거솔플면⁵내래들
삼빅개나눔아엇을거사니글노써가난홀사롬들을구제홀거
시라홀고드디어나물홀니⁶ 예수¹글으샤⁷디²만이³두어라
웨민망호게홀는나제척홀공덕을내게행호는거시나라⁸므

두가난 혼사 롬은 호상너의 와⁸치잇손즉너의 잘보아주려호
 면아무때라도호려니와다만나는 호상너의 와⁸치잇지아니
 호리라⁸ 더지어미는제능호할대호야미리나의몸에기
 롬을발나써장스호을예비호이라⁹ 나¹진실노네게닐은
 니원련하에무론어나곳이던지이복음을전호매또호반드시
 어지어미의힝호거술을너써괴록호이되리라⁺ 십이예즈중
 예호노이사가료유다스¹ 제스제장씩나아가예수를잡아더
 희물주려호니⁺ 더들이듯고깃거호여돈을주기로하락호니
 유다스¹ 드터여예수를엇더캐잡아줄괴회를찾더라[○] 제
 교절대일일유월절에염쇼를잡을때에예즈¹ 예수며엿즈와
 곁으터너¹ 날드려어다가서준비호여너로호여금유월절잔
 처를지내게호라호니잇고⁺ 예수¹ 두데즈를보내시며닐너
 마가의전호복음서언히

삼십팔

자 | 니 라 ^三 인 자 | 장 초 도 라 갈 식 칩 에 ^二 르 천 대 로 되 려 니 와
 다 만 인 조 를 폰 자 는 화 앙 이 잇 스 리 니 그 사 롬 이 나 지 아 낫 더 면
 다 형 일 번 하 였 다 하 시 고 ^三 먹 을 때 에 예 수 | 석 을 가 저 축 언 하
 시 고 쎄 여 데 즈 들 을 주 시 며 곧 ^二 샤 디 갓 다 먹 으 라 이 게 즉 내 몸
 이 로 다 하 시 고 ^三 또 흔 잔 술 을 가 저 축 언 하 신 후 에 또 흔 데 즈 들
 을 주 어 다 들 마 시 게 하 면 서 ^二 예 수 | 닐 너 곧 ^二 샤 디 이 거 시 즉
 나 의 피 니 곳 언 약 을 세 우 는 피 를 모 든 이 위 하 야 흘 닌 거 시 라 ^三
 나 ! 진 실 노 니 희 게 닐 으 느 니 나 는 상 대 나 라 세 거 슬 마 시 기 전
 에 는 다 시 포 도 나무 에 서 난 거 슬 마 시 지 아 니 리 라 ^三 임 의 노 래
 를 창 하 신 후 에 엘 나 온 산 에 가 샤 ^三 예 수 | 데 즈 들 드 려 닐 너 곧
^二 샤 디 이 밤 에 너 희 다 날 노 하 여 넘 어 짐 을 당 흘 거 시 니 대 개 칩
 에 닐 너 스 되 나 | 장 초 양 기 르 는 이 록 쓰 린 즉 못 양 이 장 초 허 여
 마 가 의 전 흔 복 음 서 어 히

지리라 하였으니 내가 다시 살아가는 후에 찾츠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에 잇스리라 하시니 베드로ㅣ엿츠와골으디 못사
롬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러치 아니하리이다
예수ㅣ닐너골으샤되나ㅣ진실노에게닐으는니 오늘곳이 밤
중에 돕기 두 해을기전에너ㅣ찾츠삼츠를나를비반하리라
베드로ㅣ굿세계말하야골으디곳너와함씨죽을지언영못츠
내나는비반치아니하겠는이다하코여러사룸의말도또하그
와곳치하더라
골으샤되너희는나의기도할동안회여기안지
라 드되너베드로와야고보와요한을다리고하가지로계실
석무셔위하코답답하샤말숨하여골으샤되 내마음이초민
힘이죽기에나르겟시니너희의여기서기드리고또하하여이

스라흐시고 조곰나아가싸희업디여빌어글으샤디혹가히
 흘만흐시거든이때에면흐게하여주소셔하며 또글으샤디
 부여부여능히못흐실거시업스신지라이잔으로써내게떠나
 가게하여주소셔비록그러하오나나의흐고져함을조참이아
 니라이에너의흐고심함을조참이니이다흐시고 드디여물
 너와데즈들이잠들물보고베드로드려말슴하여글으샤디
 시문아너자느나너편사클씨여있지못흐겟느냐
 비는거손유감에드리감을면흠이니모음은진실노원하거니
 와육신이약하도다흐고 다시가셔기도하실시또현전과
 치말슴하시고 임의도라오샤데즈들을보시니다시잠이드
 렷시며눈들이썩썩함을인흠이나엇지디답할지물나흐더라
 데삼초는오시더니닐너글으샤디이제는가히잠들자고또
 마가의현현복음서언히

스십

환안삼홀거시니라 다 되었다 때가 왔다 인즉 | 죄인의 손에 맛
 기임을 보리로 다 ^{四三} 내려나 곳치갈 지어 다나를 잡아 줄자 | 갓
 가이 왔도다 하시더니 ○ ^{四三} 말삼 홀 때에 즉시 열 두 데즈 중 홀 유
 다 | 잇다가 무리와 곳치갈과 몽동이 를가지고 제스제장파션
 비장로의 게로 브러 오니라 ^{四四} 예수로 포는자 | 일즉 군호를 주
 어 글으되 내가 입을 맛초는자 | 그사름이니 잡아 든 든 이 잡아
 두리하라 하였더니 ^{四五} 임의 니르매 즉시 예수의 게나 아와라 비
 라 비라 하였면서 입을 갓다가 다히니 ^{四六} 무리드되 여 예수씩 손을
 거위잡을식 ^{四七} 것히섯던 사름중에 홀 사름이 잇다가 갈홀씩혀
 제스장의 하인을 쳐그 귀를 썩그니 ^{四八} 예수 | 무리드려 말삼하
 여 글으샤 되너 회나를 도적잡듯기 갈과 다 못몽동이 를가지고
 와셔나를 잡느니라 ^{四九} 내가 날노너 회와 곳치던에서 부르쳐도너

회나를잡지아니하엿거니와그러나성서에귀독할하리라반
 드시못초임을엇으리라하시니 五十一 때즈들이르티여다브리고
 드라날시 五十二 나결은사롬하나히잇서뵤게벧고뵤훗니불을두
 루고예수를싸라가니군스중에결은자가잡거늘 五十三 드티여뵤
 훗니불을내여브리고드라나더라 五十四 무리에수를잡아가지
 고제스장압회니르니그곳에제스제장과장로와선비다모혔
 더라 五十五 베드로논말니예수를조차제스제장의원에드러와모
 든아전들과홍색화티불에불을쏘이더라 五十六 제스제장과판밧원
 공회에서증거를구하야예수를무함하야죽이고저하되호수
 업시니 五十七 대개여러사롬들이잇서허망할증거로써무함하되
 증거하는거시합하지아니하더니 五十八 나종애두어사롬이잇서
 니러나거조증거로써무함하야글이티 五十九 우리일죽제말을드
 마가의전호복음서이히

스십일

문쪽 열죽닐으되 이던은 사롬의 손으로 지은 거시어니와 내가
 장춧혈어 브리고 사흘만에 별다른게 혼던을 세우러니 이거 손
 사롬의 손으로 지은 거시어니와 하더라 하되 후 그것도 또 혼증
 거가 닷치아니 혼지라 후 제스장이 혼가온대 서서 예수에게 무
 리굴으되 너되 답할 거시 업느냐 이 사롬이 증거를 삼아 너를 처
 문엇짐이뇨 후 예수 | 묵연하교 되 답자아니시니 제스장이 다
 시 무리굴으되 너 | 가히 찬송하올 자의 아들 그리스도 | 냐 후
 예수 | 굴으샤 되 그러하니 너 | 장춧인저 | 천능하신 자의 올
 혼편에 안자하 놀에 구롬을 듣고 음을 보리라 하서니 후 제스장
 이 손으로 제 옷을 쓰즈며 굴으되 우리 다른 증거가 하여 무엇하리
 오 후 임의에 설만하논 말을 드벧는지라 너와 뜻사엇어 하도 못
 사롬이 외론하야 죽일죄로 결단하며 후 후춤도 밧트며 그노 혼

3 리 오 고 쓰 리 며 글 으 디 너 는 시 험 하 야 말 하 라 하 고 모 든 하 인
 도 또 흘 손 으 로 쓰 리 더 라 六六 베 드 로 는 하 원 에 있 더 니 제 스 장 외
 흘 계 집 하 인 이 니 르 라 六七 베 드 로 가 불 쏘 임 을 보 고 눈 치 하 여 글
 으 디 너 도 또 흘 본 리 나 차 렷 사 름 예 수 와 흡 썩 든 니 던 자 | 라 하
 거 늘 六八 베 드 로 | 비 반 하 야 글 으 디 나 는 아 지 도 못 하 고 또 흘 네
 카 무 어 시 라 하 는 지 모 로 노 라 하 고 드 티 여 나 아 와 문 첨 하 에 니
 르 니 들 이 우 더 라 六九 또 흘 계 집 하 인 이 보 고 꺾 히 선 사 름 드 려 말
 하 야 글 으 디 더 도 그 당 의 하 나 히 라 하 니 七十 베 드 로 | 또 흘 비 반
 하 더 니 조 곱 있 다 가 꺾 히 선 자 | 베 드 로 드 려 닐 너 글 으 디 네 가
 친 실 노 그 당 의 하 나 히 니 대 개 너 는 이 에 같 닐 니 아 사 름 이 오 또
 흘 방 언 도 역 시 닐 다 하 니 七一 베 드 로 | 저 주 하 며 밍 세 하 야 글 으
 디 이 네 가 말 하 는 바 사 름 을 나 는 아 지 못 하 노 라 하 니 七二 들 이 주
 마 가 의 전 흘 복 음 서 언 히

스십이

서 두 번째 줄 거늘 베드로 | 예수 말씀이 들어 이 뜻을 올기 전에
네 가장 첫 세 번 울나 틀비 반하리라 하심을 생각 하고 흥곡하더
라

데십오장 - **부기**에 제스제장과 장로선비원공회로 더 브려
가지로 쓰이고 예수 동행하고 쓰으러 바로 빌나도의 게가니
= 빌나도 | 무려 글으더너 | 유대인의 왕인 다윗 답하야 글으
샤 되네가 말하엿도다 하시니 **제스제장이** 여러가지로 써 힐
난 할거늘 **빌나도** | 다시 무려 글으더너 | **붓춤내** 디 답지아
니 하느나네가 못사람의 이 곳 처 여러가지로 써 증참하야 치는
거슬 보라 하되 **라** 만 예수 | 못춤내 디 답지아 니 하느니라 빌
나도 | **괴이** 하녀 이더라 **절** 일을 당하면 **레이** 혼 죄인을 샤
하되 못사람의 구함을 조차 늦는 법이려니 **흐** 사람이 있사 되

일흠은 바라바니 역적 파흔 가지로 결박 할 야 가 도 앓 시 니 이 는
 역적 질 흘 때 에 살 인 흠 이 라 8 못 사 롬 이 소 리 를 질 너 전 레 대 로
 행 할 기 를 구 할 거 늘 9 빌 나 도 1 티 답 할 여 글 으 티 너 희 날 드 러
 유 대 인 의 왕 을 노 흐 라 할 는 나 할 니 + 대 개 제 스 장 들 이 식 과 흠
 을 인 할 여 예 수 를 잡 아 온 줄 을 알 미 라 + 제 스 장 들 이 못 사 롬 을
 부 추 거 바 라 바 를 노 화 달 나 고 빌 나 도 의 게 할 라 할 니 + 빌 나 도
 1 티 답 할 고 다 시 말 할 여 글 으 티 그 러 면 날 은 바 유 대 인 의 왕 이
 란 자 를 날 드 러 었 지 할 라 할 는 요 13 못 사 롬 이 다 시 웨 여 글 으 티
 십 즈 가 에 못 박 을 지 어 다 14 빌 나 도 1 말 할 여 글 으 티 무 슝 연 고
 1 요 더 사 롬 이 무 슝 악 흠 일 을 할 었 는 나 못 사 롬 이 더 옥 웨 여 글
 으 티 십 즈 가 에 못 박 을 지 어 다 할 니 15 빌 나 도 1 백 성 들 을 진 정
 코 저 할 야 바 라 바 를 흠 편 으 로 노 코 몬 저 예 수 를 처 로 치 고 내 여
 마 가 의 전 흠 복 음 서 언 히

스십삼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시니 ¹⁶ 군스 | 스을고원으로 드러가니 이
 곳은 공령이라 드되 여일영을 모호고 ¹⁷ 홍포로써 예수를 남히
 고가식나 무로면 류관을 문드라씩우고 ¹⁸ 예수씩문안하야 글
 으되 유대인의 왕은 평안하시니 잇가 하며 ¹⁹ 또 흔갈 디로써 그
 머리틀치며 그몸에 축뱃트며 무릅 흘살고 절하며 ²⁰ 희롱하 기
 를 못치매 홍포를 벗기고 님엇던 옷을 님혀 쓰으려 내여다가 십
 자가에 못박을시 ²¹ 구레네사람시몬이 잇시니 못아렉산드와
 루보란 사람의 아들이니 식골서오는 길에 지나가더니 여러 사
 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머지우고 ²² 예수를 다려 흔 곳
 에 나르니 이곳은 골곳싸라 하시니 번역할진대 희골곳이란
 말이라 ²³ 몰약으로써 술에 두서 먹으라 고주거늘 예수 | 밧자
 아니하시고 ²⁴ 십자가에 못준 후에 예수의 의복을 논 흘시 제비

미시말에너르도특싸히어뚝더니^{三三} 미말에는예수크게소
리할여글으샤되엘노이라마사박다나이라하니번역
하면곳우리하늘아바님이여우리하늘바님이여너^一엇지나
를보리는나잇가하는말이라^{三三} 것히섯던엇던사람이뜻고글
으되너^一엘의아를부른다하니^{三三} 혼사람이잇다가급히가서
히용에다가젧국을뭇쳐갈되에묵거다가마시우며글으되아
직크만이두고우리들이시형하야엘의아가와셔느려주나보
자하더니^{三三} 예수크게소리하야혼번부르고드되여괴절하
시니^{三三} 면에쳤던장막이우희셔브러아태사지쓰어져두조각
에나난자라^{三三} 백부장이압희섯다가이곳치큰소리에괴절함
을보고글으되이사람이상대의아들이춤이로다하더라○^{三三}
두어부녀멀니서구경할식그중에막다레네마리아와밋쇼년

야고보와 다만 요세의 로마리아와 다못살노메란저어미들이
 잇시나 ^{四二} 곳예수 | 갈닐의 아에게실때 되서 섬기던자 | 오또
 흘녀러저어미잇시나 곳예루살렘에 곳치올나왔던자 | 러라
 ○ ^{四三} 이날은 이에예비하는 절일이러니 곳사방날 전일일인고
 로저물때에 ^{四四} 아리마다야 사람의 존귀흔선비잇는지라 이는
 상데국을 앙모하는자 | 니일흙은 요셉이라와셔의 연이빌나
 도를드러가보고 예수의 시체를달나흐니 ^{四五} 빌나도 | 예수 |
 임의죽음을이상이너드되여빅부장을불너 예수 | 죽은제
 오린가 무러보고 ^{四六} 빅부장의 말을듯고 안후에 시테로써 요셉
 의게내여주니 ^{四七} 요셉이외를사다가지시테를느려렴하야반셔
 스이에푼무덤에장스하고 들흐나 흘묘문에 구을너다가 막아
 노했시나 ^{四八} 막다레베마리아와 밋요세의 로마리아 | 다 예수
 마가의 전호복음서언히

스십오

를 어티 두는 자 보니라

대십륙장 - 사밧날이 지나매 막다레베하리아와 다만야고보의 오마리아와 밧살노메향속을 사가지고와서 그시태에 발나드리려하여 二 실엿날에 분야히듯을 때 무덤에 갈제 三 서로 말하여 곧 四 티나가 우리를 위하야 묘문에서 들을 구을녀주리오 四 대더그돌이 대단이 큼이라 하더니 브라본즉돌이 발서옴겨노혔고 五 무덤에 드리갈때 혼절문이 우편에 안자긴 흰옷을 낚은 거슬보고 이상이 너이니 六 그절문사람이 말하여 곧 七 티상이 너이지 말나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히섯던나사렛에수를 찻는 다더 一 밧서 내려나서 여괴잇지아니 하나다만시태를 못엇던 곳을 보라 七 다만가서 그에 즈들파밧베드로게 말하되 예수너 화보다문져갈닐의 아로가섯시너거괴셔가히그

말하던 대로 보리라 지어미 급히 나와 무덤으로서 브러달음
 절하야 놀나 쉼고 또 혼 사룸의 게도 무셔워닐 지 못하더라 ○
 * 철일 첫날 볍을 때에 예수 | 임의 다시 살아나 시매 몬져 막다
 레네 마리아의 게 나타나 되시니 일즉 지어미의 게 널 곱 귀신
 을 때여 주신 자 | 라 + 지어미가 서전에 되시고 지내던 사룸들
 의 게 전하니 이때 사룸들이 숨히우더니 + 여러히 예수가 다시
 살아 그 지어미의 게 되셨다 흠을 듯고 밋지 아니하더니 + 그 후
 그 사룸들 중에 두 사룸이 식골에 가는 길에 예수 | 열골을 곱치
 시고 더의 게 되이시매 + 두 사룸이 가서 그 흠은 사룸의 게 곱하
 니 흠은 사룸들도 또 혼 밋지 아니하더니 + 그 후 열 두 데 즈 들 안
 진 자리에 예수 | 더들의 게 되이시며 그 밋지 아니 흠과 다 못마
 음들이 완 흠을 썩지 저시니 그 다시 살으신 후 되왔 다 흠을 밋지
 마가의 전 혼 복음서 언히

스십륙

아 니 흠 이 러 라 ^ㅅ 에 수 | 닐 너 글 으 샤 디 너 희 들 이 윈 려 하 로 든
 니 며 복 음 을 만 민 의 게 전 하 야 ^ㅅ 밋 고 세 레 를 밧 은 자 는 구 하 여
 쯔 을 엇 고 밋 지 아 니 하 는 자 는 죄 를 덩 흘 게 시 타 ^ㅅ 밋 는 자 는 맛
 당 이 괴 이 흠 즈 최 잇 서 조 칠 거 시 니 곳 나 의 ^ㅅ 의 탁 하 야 귀
 신 을 쫓 치 며 장 초 이 국 말 을 능 히 말 하 며 ^ㅅ 을 죽 이 거 나 독
 약 을 마 셔 도 해 가 업 슬 거 시 오 병 인 의 게 손 을 타 면 병 이 반 드 시
 는 흐 리 라 ○ ^ㅅ 쥬 | 더 희 로 더 브 러 말 숨 하 시 가 를 못 처 시 고 드
 티 여 하 늘 에 오 르 샤 상 데 우 편 에 안 지 시 니 ^ㅅ 에 즈 들 이 스 방 으
 로 나 가 교 를 퍼 매 쥬 | 이 에 쫓 치 도 으 샤 괴 이 흠 즈 최 로 써 그 도
 를 징 험 케 하 시 다 아 맨

마 가 의 천 흠 복 음 서 언 히 중



